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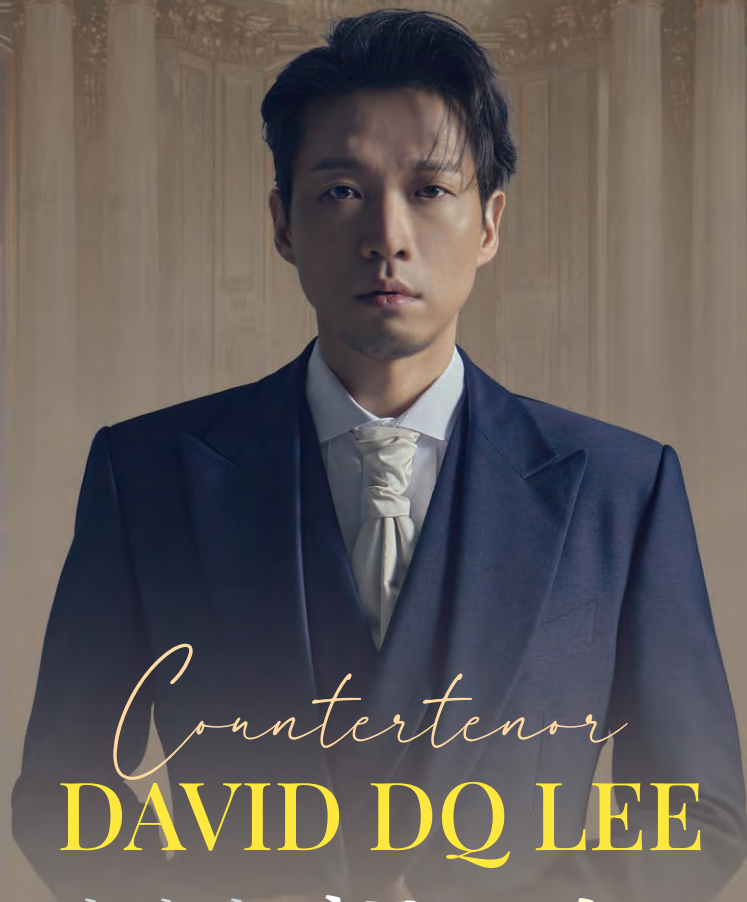


© Sangwook Lee

Cover Story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COLUMN 허물어지는 경계, 확장하는 클래식 음악
여기. 예술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Countertenor
DAVID DQ LEE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Baroque'log

With



피아노 조 윤 성



더블베이스 성 민 제



기타 고 의 석



주최



예매 www.bscc.or.kr / 607-6000(ARS 1 번)

티켓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7세 이상 관람 가능)

2025. 9. 5.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테너 이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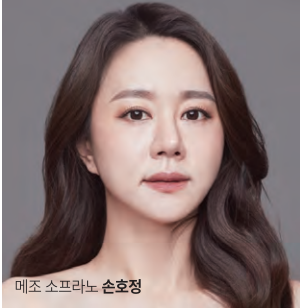
지휘 유건우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양승엽



메조 소프라노 손호정

제 100 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우리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소프라노 스텔라 안



테너 정지현



소프라노 왕기현



메조 소프라노 이지영



베이스 송일도



바리톤 이승민



해설 조영희



시민합창단 & 오케스트라 음

2025. 9. 5. (금)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26
을숙도

부산·경남 지역
음악예술인을 모십니다!

공감

Eulsukdo
Cultural Center

응모자격

음악 분야(피아노, 관악, 현악, 실내악, 성악, 합창, 국악, 실용음악 등)에서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경남 지역 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사항

공연당 50~150만원 지급
무료 대관, 홍보일체

선발예정

20개 공연 선정

접수기간

2025. 9. 5.(금) ~ 9. 19.(금)
오후 6시 마감

결과발표

2025. 9. 30.(화)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공연

영도문화예술회관 평작공연시리즈 4

광 대 탈 놀 이

땀소리 판

2025. 9. 6. 토요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주최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여학집단 the i: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티켓 일반 10,000원 정기회원 7,000원 VIP회원 5,000원 티켓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yes24 공연문의 051-419-5571~4 관람연령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출연 안대천 최영호 선영욱 배정찬 민현기 김용훈 이정동 김동한 송동윤 송보라



Play on Busan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아웃리치콘서트



힐링뮤지션 [후]



천천탱고

2025. **9.17**(수) 오후 7시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Play on Busan [부산에서 즐기다]

'Play on Busan'은 지역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 국악, 가요등의 음악 공연부터 연극, 코미디,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공연

smile!
금정

BALLET Giselle

지젤

2025. 9. 19. (금) 19: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입장연령 8세 이상 예매  금정문화회관 NOL ticket 문의 051-519-5661~4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금정문화회관 발레에스티퍼협동조합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FRIDA KAHLO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展 “*Viva Frida Kahlo*”

2025. 08. 28.^{Thu} — 10.19.^{Sun} 매주 월요일 휴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SEPTEMBER 2025 VOL. **405**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고객지원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이아라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10 Column
허물어지는 경계, 확장하는 클래식 음악
- 12 반갑습니다
코랄하우스 남성합창단
- 14 여기, 예술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 16 Cultural Issue
공연예술에도 시장이 있다: 아트마켓의 세계
- 18 무대 뒤 사람들
조명감독 조세현
- 20 현대미술산책
초현실주의, 현실을 뒤집어 보다
- 26 Cover Story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 30 Preview
- 40 문화가화제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 44 전시화제
- 48 Review
- 52 Program Guide
- 62 객석에서
- 63 New Book
- 64 BSCC News
- 68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허물어지는 경계, 확장하는 클래식 음악

글 박진홍 음악평론가



클래식 음악은 지나간 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엄격한 제약이 걸려있다. 늘 혁신은 클래식의 그 단단한 전통의 벽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요즘 팬데믹의 광풍도 잠잠해지고 기억 저편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혼돈의 시간은 많은 것이 혁신이라 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냈다. 팬데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디지털 매체 활용의 확대와 사람들의 생각 변화가 세상을 더 빠르고 다채롭게 바꾸어가고 있다. 음악 문화 역시 20세기 무조음악의 충격과 비견할 만한 변화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클래식 음악의 양상을 살펴보면 음악 문화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음악 장르를 규정하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무게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정통 클래식의 가장 강력한 군대라 할 오케스트라가 애니메이션 음악, 대중음악을 연주하고, 카

리스마적 존재인 지휘자가 춤으로 음악을 말한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의 백윤학 교수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표현 방식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연주곡에 따라 지휘는 달라지기에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익숙한 선율과 감상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지휘자의 몸짓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연장까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

숏폼이 젊은 세대들을 클래식 음악에 열광하게 하고 있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유사한 짧은 영상들을 무궁무진하게 재생해 내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도록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숏폼에는 아마추어의 재치 있는 편집 영상부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나 임윤찬, 첼리스트 한재민 같은 젊은 스타 연주자들, 이미 고인이 된 거장의 음악까지 폭넓게 디지털 스테리밍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연주회 티켓 전쟁에도 참전토록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VR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연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작곡가 에릭 휘태커는 가상합창단(Virtual Choir)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음악으로 한데 모았다. 그는 자신의 합창곡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곡을 전 세계 누구나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 주면 그것을 편집해서 거대한 합창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첫 시도였던 2009년에는 12개국 185명이 참여했다. 이후 점점 참가자가 늘어갔고 2020년 발표한 Sing Gently에는 129개국 17,56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는 VR을 활용한 앱을 출시해 관객이 연주자들 사이에 들어가 무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는 2021년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플랫폼 Gather를 활용하여 가상 음악 공간 Music Town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 입장하고 가상 공연장을 탐색하여 실제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금지, 거리두기 상황에서 공연예술계의 대안이자 메타버스를 음악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클래식계는 포용성과 다양성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여성 지휘자와 작곡가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작품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지휘자로는 김은선, 성시연, 장한나 등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 시몬 영(Simone Young),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 카리나 카넬라키스(Karina Canellakis) 등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곡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진은숙 작곡가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출신 현대 음악 작곡가 안나 토르발즈도티르(Anna Thorvaldsdottir), 멕시코 출신의 가브리엘라 오르티스(Gabriela Ortiz), 미국 출신의 제시 몽고메리(Jessie Montgomery), 인도네시아 출신의 유니케

탄질(Eunike Tanzil) 등 여성 작곡가들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다양한 장르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청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유럽이나 미국을 벗어나 북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적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음악의 형태 면에서는 여러 장르가 융합되고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도드라지게 발표되고 있다. 이른바 인디 클래식과 네오 클래식과 같은 음악의 출현이다. 인디 클래식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형 공연장과 유명 레이블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이다. 이들은 전통을 벗어난 만큼 대안적 공간이나 새로운 유통 방식을 모색한다. 네오 클래식은 클래식의 어법에 대중성을 가미하고 주변 환경에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부분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형태이다. 이들은 현재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영화, 드라마 음악을 통해 대중들을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

전통적인 콘서트홀 공간을 벗어나 카페, 갤러리, 공원, 병원, 지하철 등 다양한 공간이 음악을 품고 있다. 공간의 크기로 인해 대부분 소규모 공연이 일회 또는 다회 열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공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으로 관객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소통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쉽게 음악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클래식 음악 문화의 변화와 발전 모습을 통해 부산의 음악인, 애호가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들은 디지털 기술의 수용, 공연 공간의 탈 전통화, 포용성과 다양성의 확장, 새로운 장르의 수용과 창작 기반 정착, 청중 참여 및 소통형 음악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반영이다. 멋진 음악 문화가 꽃 피울 수 있는 공연 공간들이 있고 좋은 공연들이 무대를 채워가고 있지만 세계의 음악 문화에 부는 새롭고 혁신적인 바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면서 거기에 좀더 '부산'스러운 것을 융합한다면 더 음악할 맛, 음악을 즐길 맛이 나지 않을까.

100명의 멋진 시니어가 꾸미는 행복한 합창 축제

코랄하우스 남성합창단, 내년 시즌 연주회 준비

글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평화공원 인근의 코랄하우스 전용 연습실. 정확하게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이하 코랄하우스 합창단)의 음악 동지다. 80여 평의 넓직한 공간에 묘한 긴장과 설렘이 흐른다. 변원탄 단장과 김강규 지휘자가 만나 코랄하우스 합창단의 내년 시즌 공연계획과 단원 모집, 연습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내년 초 정기 공연엔 명실공히 100명이 무대를 꽉 채울 겁니다. 벌써 신청자가 120명이 넘어요. 이번엔 산뜻한 단복도 준비 중입니다. 시니어 단원들이 단복을 입고 우렁찬 합창을 뽐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변원탄 단장)

“인성(人聲), 즉 인간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가 있을까요? 100명이 함께 부르는 웅장한 합창은 이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활력이 될 겁니다. 여기 참가자들은 인생의 멋, 음악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예요.”(김강규 지휘자)

코랄하우스 합창단은 매년 2월을 전후해 연주회를 갖고 곧장 해산하는 ‘축제형’ 남성 합창단이다. 이같은 프로젝트 합창단은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단원들은 모두 남성, 60~70대가 주축이며 전문직, 퇴직자 등으로 면면이 다양하다. 연초에 자발적으로 모여 10회 가량 바짝 연습하고 공연이 끝나면 즉시 흩어짐으로써 부담없이 참

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그 속에서 단원들은 서로 소통 연대하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긴다. 함께 노래하다 보면 자잘한 근심은 씻기고 저절로 하나가 된다.

코랄(Choral)은 ‘합창’을 뜻하는 독일어이고, 코랄하우스는 곧 ‘합창의 집’이다. 태동한 해는 2012년이다. 이 시점, 변원탄 단장과 김강규 지휘자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열렸던 전미합창지휘자 컨벤션에 갔다가 120명의 남성합창단 연주를 보고 감명받는다. “부산에도 저런 멋진 합창단을 만들어보자”는 김 지휘자의 제안을 변원탄 단장이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 변 단장은 합창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승인문화재단을 만들고, 대연동에 전문 연습실도 마련했다.

김강규 지휘자는 부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무려 12년간 지낸 베테랑 음악인이다. 서울음대, 독일 쾰른국립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그는 부산국제합창제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클래식부산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부산 합창음악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스타급이다. 코랄하우스에 단원이 모여드는 데엔 김 지휘자의 명성이 한몫 한다.

변원탄 단장은 부산 합창계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문화후원자다. 부산국제합창제를 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전통의 ‘노엘합창단’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또한 부산국제음악아카데미, 부산 중고교 합창경연대회, 다문



코랄하우스 남성합창단을 이끄는 김강규(왼쪽) 지휘자와 변원탄 단장이 내년초 연주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화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색동소년소녀합창단’ 등을 꾸려 부산 합창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현재 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명예회장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양산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늘날 코랄하우스 합창단이 유지되는 데엔 ‘변원탄-김강규 쌍두마차’가 굳건히 버티고 있기에 가능했다. 김 지휘자가 실력으로 마차를 이끌고, 변 단장이 온힘을 다해 밀어주고 있다. 이들에게 ‘합창’은 어떤 것일까? 차례 차례 물어보았다.

“합창은 음악을 넘어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일종의 사회운동인 거죠. 함께 모여 노래한다는 건 얼마나 흥미롭고 숭고합니까? 코랄하우스 합창단은 문화적 품격과 행복을 추구합니다.”(김강규 지휘자)

“합창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양보심, 질서, 평화 등의 가치를 말할 수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재미가 있죠. 함께 부르고 내지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져요.”(변원탄 단장)

지난해 코랄하우스 프로젝트 팀에 참가해 공연을 가진

바 있는 유홍석(74) 시인은 밴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난생 처음 합창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악보를 보며 노래하는 건 고교 음악시간 이후 50년만의 생소한 일입니다. 음정이 불안했지만 결눈질로 따라하며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 노래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 기쁜 마음은 가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아내는 물론 출장길에 공연을 볼 수 있게 된 아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경험을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합창에 빠지는 이유를 알만하다.

부산에는 대략 100여 개의 민간(사설)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저변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이 주최하는 부산합창제도 열린다. 합창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밝아진다. 코랄하우스 합창단은 1년에 한번 무대를 꾸미지만, 그 에너지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코랄하우스는 합창 문화운동의 건인가 되고 있다. 내년 2월, 12번째 정기공연이 기다려진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상호부조론으로 읽는 예술

가을걷이가 한창인 개미 나라. 개미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나르고, 베짦이는 한쪽에서 노래를 부른다. 얼핏 보기에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개미의 일터에 음악이 없다면 노동은 딱딱할 것이고, 청중이 없으면 베짦이의 노래는 바람에 흩날릴 뿐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예술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예술 역시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 일상의 고단한 자리에 위로를 건네고, 고립된 마음의 틈을 메워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

러시아의 사상가 크로포트킨(Pyotr Alekseyevich Kropotkin)은 저서 『상호부조론』에서 동물과 인간 사회를 새롭게 읽어냈다. 그는 무척추동물, 개미와 꿀벌, 학과 앵무새와 같은 동물에서부터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모두는 갈등과 투쟁을 통한 적자생존이 아닌, 상호 지지와 연대를 통해 공동생존을 해 온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상호부조론(Mutual Aid Theory)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윤리적 의제로 확장된다. 이 이론이 약자를 돌보고 모두의 생존을 도모하는 삶의 태도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핵심은 상호 돌봄과 연대, 곧 협력 행위 자체인데 이는 의무와 보편 법칙에 기반한 칸트의 윤리관과는 다르며, 오랜 역사 동안 상호부조를 통해 살아남은 본능과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살아남으려면 공감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며, 그렇기에 인간 본성 역시 근본적으로 이기적 경쟁자가 아니라 사회적·협력적 존재인 것이다.

예술 또한 이 상호부조의 맥락 위에 있다. 예술 활동은 개인 내면의 표현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매개하는

실천이 된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상처도 덜어낸다. 그래서 예술은 트라우마의 어둠을 밝히는 안전한 등불이 되는 것이다.

부산, 그리고 런던에서

부산문화재단은 마을건강센터와 손잡고 노인과 함께 하는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꾸려왔다.(2024년 15개소, 2025년 23개소) 미술·무용·음악을 매개로 한 활동 속에서 노인들은 웃음을 되찾고, 병원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공동체적 회복의 무대로 변모한다. (2024년 2개소, 2025년 2개소) 청년층을 위한 ‘쉬었음’ 프로그램은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상실된 자신감을 회복하는 작은 발판이 되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해크니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이와 같은 중요한 활동을 보여준다. 2011년 테사 헌킨(Tessa Hunkin)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중독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모여 공원과 놀이터 벽면에 모자이크를 붙이는 작업으로 시작했다. 참여자들의 손길은 지역의 낡은 곳을 미적 공간으로 살아가게 하고, 시민들은 이곳에서 휴식의 기쁨을 즐긴다.

2025년 봄, 런던 레젠트 파크 놀이터에는 다람쥐가 거품을 불고, 여우가 공을 코끝에 올린 채 햇살 속에 장난치는 모습이 모자이크로 살아났다. 같은 해 런던 동물원 ‘Land of the Lions’ 구역에는 대형 모자이크가 설치되었다. 참여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 힘을 신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2024 병원예술프로젝트

우리 사회의 시그널

우리나라는 자연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의 현실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11.3%이며, 60대 연령군의 경우 6.7%이지만, 8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20%를 초과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노인은 1.0%였으며, 이 역시 고령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47.8%, 외로움 23.3%,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이 5.9%로 나타났다.

2024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부산의 노령화지수는 247.3으로 8대 특별·광역시 중 1위였으며, 홀몸노인의 비중도 12.7%로 1위였다. 부산이 고령사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또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초연결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간으로서 소외와 고립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앜음 청년 실태조사」결과 만 19세~34세 청년 중 ‘취앜음’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지난 1년간 쑤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47.4%가 ‘취앜다’고 응답했다. ‘취앜음’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관한 문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71.1%, 사회생활 단절로 인한 자신감 하락이 62.5%로 나타났다. 또 2024년 「부산사회조사」 결과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 중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은 22.9%,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문항은 8.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표로 볼 때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청년의 불안정, 그리고 공동체성의 약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과 함께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청년은 ‘취앜음’이라는 이름의 불안과 단절 속에 흔들린다. 고령과 청년 모두, 사회적 고립이라는 정서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서로를 살리는 노래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베짖이의 작은 노래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음률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야말로 상호부조의 본질이 느껴질 수 있다.

예술은 개인의 우울과 고립을 털어내고, 공동체의 신뢰를 복원하며, 도시에 사회적 포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것은 곧 정서적 안전망이자 돌봄 자본이다.

크로포트킨이 말했듯,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서로 지켜주고 함께 살아왔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모두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랜 생존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노래 한 자락, 그림 한 점, 춤 한 사위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방식의 연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둥글게 모여볼게요. 천천히, 연결된 원을 통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마치 꽃봉오리가 피었다 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오늘은 익어버린 낙엽과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닮았습니다. 우리는 혼자자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서로를 지지합니다. (부산문화재단, 병원예술 프로젝트 예술치유 에세이 『마음을 담다』 67쪽)

공연예술에도 시장이 있다 아트마켓의 세계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공연 작품을 사고파는 곳이 있다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국악), 뮤지컬 등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에도 ‘마켓’이 있다. 작품을 공연장과 기획자에게 팔기 위한 예술가와, 새로운 작품을 물색하는 기획자 간에 작품을 사고파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다.

2005년에 시작한 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과 2023년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은 국내 아트마켓의 대표적인 사례다. 영문명의 글자들을 딴 합성어로 각각 ‘팸스’(PAMS)와 ‘비팸’(BPAM)으로도 불린다. 올해 팸스는 10월 14~18일 서울 일대에서, 비팸은 그보다 한 달 앞서 9월 24일 부산에서 열린다. 무슨 일들이 진행될까?

공연아트마켓에선 무슨 일이 펼쳐질까?

아트마켓은 작품을 보여주고(쇼케이스)→작품의 필요를 설득해 관심을 모으고(피칭)→제작 조건을 맞춰보고(1:1 미팅)→관계를 굳히는(부스·네트워킹) 흐름이 한자리에서 압축적으로 굴러가는 장이다. 작품→만남→계약의 선순환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 내는 것이다.

쇼케이스는 완성작이든, 핵심 장면을 추린 하이라이트든 무대에서 짧게 시연해 작품의 분위기와 전반적인 느낌을 체감하게 한다. 공연 소개 영상물이 아무리 발달해도 실제 무대의 감각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큐레이터, 기획자, 바이어에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쇼케이스다.

피칭은 ‘왜 지금 이 작품인가’를 논리로 증명하는 시간이다. 3~7분 안에 작품의 필요성과 제작 가능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때 작품 제작 시 필요한 기술과 재정, 협력 요청

사항 등을 제시하면 공연 제작자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 관심사가 서로 맞으면 피칭에 이어 미팅이 진행된다.

스피드 데이팅이나 미팅은 작품 제작의 조력자를 구하는 예술가와, 예술가의 새로운 상상력을 갈구하는 기획자와의 만남이다. 만남은 10~15분씩 짧게 이어지며, 양측은 작품 개요와 공연 시기, 장비·인력, 예산 구조를 날카롭게 주고 받는다. 이렇게 ‘더욱 깊게 논의할 상대’를 빠르게 찾는다.

행사장 한편의 부스와 네트워킹은 관계를 다지는 공간이다. 예술단체는 그간 쌓은 포트폴리오를 전시하고, 해가 지면 간단한 주류나 음료를 마시며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 나간다. 낮에 본 쇼케이스-피칭-미팅에서 못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다음 단계의 일정과 협력안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아트마켓은 왜 필요했나?

한국에서 아트마켓이 자리 잡은 데에는 분명한 시대적 배경과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요약하면, 유통의 병목을 뚫고 국제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필요, 전문 경영(아트 매니지먼트)의 확립, 수도권 편중 속에서 지역으로 공연 작품을 파급시키는 과제, 그리고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는 이동성과 교류 방식의 재설계가 그것이었다.

2000년대 초, 국내의 문화정책은 공연예술을 ‘산업’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라는 예술가들의 고민에 이어 ‘작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팔 것인가’라는 유통의 고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촉진할 공연예술마켓의 필요가 제기되고, 2005년 출범한 팸스(서울아트마켓)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팸스는 “합리적 유통”과 “해외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고, 2006년에는 문화부 산하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신설되어 국제교류와 유통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공연예술을 향한 정책의 프레임이 창작→유통→교류로 확장되며 공연예술마켓이 공적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와 맞물린 아트마켓

아트마켓 현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아트마

켓과 맞물려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시나르(CINARS) 비엔날레는 북미와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연예술마켓이다. 1984년에 설립되어 공연예술의 쇼케이스와 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연작품을 비행기에 실어 수출까지 도모하는 박람회장이다. 비엔날레라는 행사명처럼 2년마다 개최되는 이 현장의 최근 회차 기준 54개국 약 1,900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다음 비엔날레는 2026년 11월에 열린다. 작품 쇼케이스→전시장 부스 미팅→후속 협상이라는 동선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미국 뉴욕에서 연초에 열리는 ‘APAP|NYC’는 미국공연기획자협회(APAP)가 개최하는 공연시장인 만큼 전세계 내로라하는 공연장과 극장의 기획자(피디)들이 모인다. 무엇보다 수백 편의 공연 쇼케이스가 시작 하루 이틀 전부터 맨해튼 전역의 호텔, 소극장, 라이브하우스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어 뉴욕의 새해는 예술시장으로 바뀐다.

가까운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요코하마의 YPAM도 있다. ‘Yokohama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eeting’이라는 제목처럼 만남(Meeting) 자체가 콘텐츠인 이 마켓은 다른 마켓처럼 쇼케이스, 포럼, 프린지,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 심지어 심야까지 이어지는 교류 프로그램(YPAM Exchange), 즉 야시장은 이 마켓의 시그니처다. 올해는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요코하마 전역에서 개최된다.

축제로 진화 중인 부산의 공연마켓

올해의 비팜(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은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에서 열린다. 작년 10월 4~8일에 진행된 비팜의 슬로건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A New Wave of Performing Arts)”이다. 5일간 약 5만 명이 다녀갔고, 해외 관계자는 68명(33개국)에서 143명(36개국)으로 2023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공식 초청작 40편을 포함해 총 102편이 소개됐고, 비슷한 기간에 열린 부산거리예술축제(BUSSA)·부산국제춤마켓(BIDAM) 등과의 연계도 존재감을 키웠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스피드 데이트 현장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작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아트마켓은 지역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품의 해외 진출 도모와 동시에 지역 기반의 관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니, 공연예술마켓을 ‘업계만의 비밀파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요즘 축제형 마켓이 늘어나 공개 쇼케이스, 토크 등의 관객 친화형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비팜도 이러한 노력을 가하여 ‘마켓=관객 축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관객은 ‘신작을 누구보다 먼저 보는 특권’과 ‘무대 뒤 이야기’를 동시에 맞볼 수 있다.

서울의 팸스는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팸스 초이스(선정 쇼케이스)를 비롯해 피칭 세션, 부스 전시, 스피드 데이트 같은 매뉴얼 대로 동선이 매끈하게 굴러간다. 이러한 팸스도 축제형 성격을 강화했는데,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은 공연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K-스테이지 페스타’를 통해 팸스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웰컴대학로를 한 시기에 묶었다. 이로 인해 서울은 ‘보고-만나고-계약하는 흐름’을 한 번에 타기 수월해졌고, 부산은 바다와 도시의 풍경 속에서 관객 친화적 축제형 마켓의 매력을 선명히 보여 주었다.

공연시장은 사람들의 신뢰가 유통을 결정하는 공간이다. 아트마켓은 그 신뢰를 형성하는 공적 인프라로, 창작과 산업을 잇는 관문이다. 부산의 비팜, 서울의 팸스는 시민과 공연시장을 연결해 도심 속 색다른 축제를 만들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오늘도 그 무대는 주인과 관객을 기다린다.

프랑스에 갔다온 <컨테이너>

조명감독 조세현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가 떠들썩하다. 쉬운 생각으로는 독립기념일이나 해방일로 부를 것 같은데, 광복절이라 명명한 것은 참 좋은 선택이다. ‘빛을 되찾다’.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40년대 만주에서 조직된 우리의 독립전쟁부대 이름도 ‘광복군’이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던가. 우리의 선조들은 빛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던져가며 싸웠다. 광복절 전야제의 아름다운 조명들은 우리가 되찾은 빛이 잘 장성한 걸 보는 듯 흐뭇했다.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과업도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가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노래한다. 공연 중의 암전(暗轉)은 곧 돌아올 조명이 약속된 시간이다. 어떤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무대의 성격이 좌우된다. 오늘은 그 빛을 만지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프랑스 아비뇽 오프페스티벌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세현 조명감독을 만났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시차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의 조명감독이라니, 상황이 좀 묘하게 되었다. 그래도 페스티벌의 생생한 느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니, 그 어수선했면서도 활기찼을 아비뇽의 거리와 극장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극단 ‘따뜻한사람’이 <컨테이너>란 작품을 들고 이역만리 프랑스를 가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여덟 명인데

배우 네 명에 스태프 네 명. 스태프 네 명은 연출자와 조명감독, 영상오퍼레이터와 기술감독이었으니 연극에 있어서 조명감독은 빠질 수 없는 존재인가보다. 그래, 조명 없는 연극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조명장비를 원하는 만큼 들고 갈 수도 없었을텐데 어떻게 표현해냈을지 궁금했다. “가장 기본적인 조명을 세팅하는 것으로 했다. 출국하기 전에 같은 컨디션의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올리고 난 다음이라 페스티벌에 가서도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림이 참 좋았다. 최대한 비워낸 공연을 치르면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돌아보게 됐다. 과함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비움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랄까?” 수백 개의 극단이 찾아든 한여름의 아비뇽에서 연극 <썬샤인의 전사들> <울리우스 카이사르> <저널리즘> <1945>,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영도다리 연가> <그날 1987:기억> <크리스마스 캐롤>, 무용 <시인 김민부> <가족의 역사> <놀이터> 등을 만들어낸 20년 업력의 조명감독이 다시 초심을 돌아보고 있었다.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본값으로 보아왔던 것일까? 조명은 그 필요성과 존재감에 비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광복은 생각보다 오래지 않은 일이다. 연출자가 극본을 쓰고 무대를 만들며 배우들이 전단을 돌리고 조명기를 붙잡던 어제가 기억난다면 그때는 조명감독의 존재조차 불분명했을터, 조명감독의 존재가 그렇게 빛났을 리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대와 극본과 배우에 따라 빛의 모양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독립된 연출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 장면의 분위기를 규정하고, 인물의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며, 무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전환과 이동이 조명의 몫이다. 빛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무대가 달라진다. 어쩌면 조명감독은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막후의 실력자 혹은 배후 조정자로 지목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그러나 내일의 무대는 어떠한 조명감독을 원할지는 불투명하다. LED조명과 AI기술이 무대환경을 어떻게 바꿔낼지 예측은 불가능 가운데, 차가운 조명이 슬금슬금 무대를 장악했다. 한 개



의 전구가 한가지 색깔을 내던 때는 이미 지나갔고, 버튼 조작으로 혹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색색깔로 조명이 바뀌는 마법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유능한 기술자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성실한 예술가를 원할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아비뇽에서처럼 비워낸대로 비워낸 기본조명의 담백한 공연들이 복고의 바람으로 그리움을 탈지도 모르겠다.

“부산지역의 예술공연단체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순환의 굴레에서 좀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다.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와주지 않으니 단체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넉넉하지 않은 지원금에 의존해 작품을 만들다보니 또 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많고, 그러니까 또 시민들이 외면하고,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배우나 스태프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게 되니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중앙의 작품들엔 또 사람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언젠가 이런 노력들이 빛을 보겠지만 또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도 크다.” 조세현 감독의 안타까움과 우려가 전하는 조명은 서늘한 파란색이다. 그러나 밝고 활기찬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희망에 담아 전하는 광복의 기운이 오래 지속되면서 더 큰 빛의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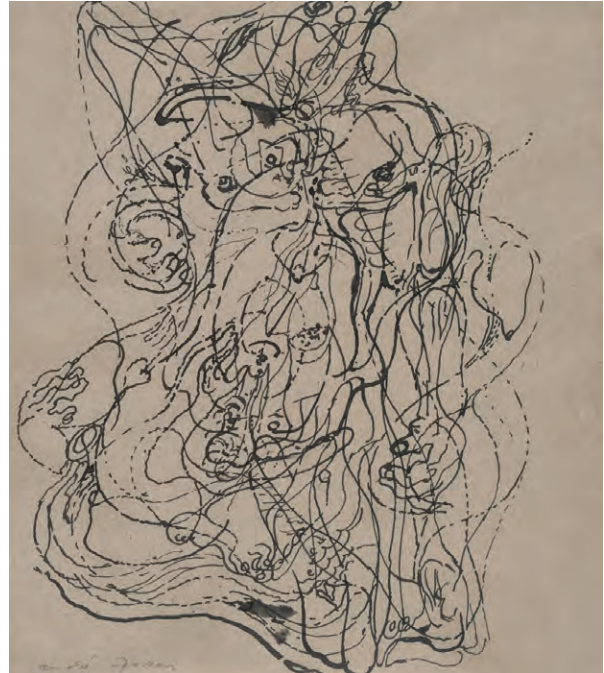
초현실주의, 현실을 뒤집어 보다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다양한 현대미술 사조 중,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은 단연코 초현실주의(Surrealism)이다. 현실에서 공존하기 힘든 두 요소가 만나는 현상을 우리는 ‘초현실적(surreal)’이라 부른다. 이런 초현실적 풍경은 영화, 광고, 패션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낯익은 광경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초현실주의는 순수예술을 넘어 삶의 일부이자, 논리와 상상·물질과 정신·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쩌다 초현실을 불러들이게 되었을까?

1차 대전이 끝난 후, 취리히에 있던 다다이스트들은 속속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각국에서 반사회, 반예술을 내세우는 다다(Dada)의 정신을 퍼트리며 활동을 이어갔다. 파리의 열정적인 젊은 시인,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1896~1966)은 다다에 공감하며 파리로 온 취리히 다다이스트 트리스탄 차라를 열렬히 환영했다. 탐욕과 전쟁으로 점철된 세계에 환멸을 느낀 브르통에게 다다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는데, 다다의 자유분방함은 이내 방종과 무질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브르통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체계적이고 질서 잡힌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차라와 결별한다. 이후 그는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새로운 예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을 통해 꿈(욕망)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둘의 융합을 추구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계몽주의 전통을 깨고 20세기 초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강조하며, 인간은 무의식에 지배된다고 주장했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과 기억, 감정이 저장된 영역으



앙드레 마송, <오토마틱 드로잉>, 1924, 종이에 잉크, 23.5×20.6cm, 뉴욕 현대미술관

로, 꿈이나 대화, 증상을 통해 드러난다. 의학도였던 브르통은 1차 대전 중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무의식이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깨닫고는 무의식을 다다이즘에 접목하였다. 그리고 시인 아폴리네르가 쓴 오래된 카탈로그에서 ‘초현실주의’라는 단어를 발견하고는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다다이스트들은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명명했지만, 브르통은 초현실주의가 역사적 계보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곡>의 저자 단테와 셰익스피어부터 피카소와 뒤샹까지 초현실주의자 명단에 넣으며 자신의 세



막스 에른스트, <도시 전체>, 1935~1936, 캔버스에 유채, 60×81cm,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력을 구축하였다. 그는 3편의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유럽 각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초현실주의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문학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는 이내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1930년대에 이르면 주요한 예술 운동으로 떠올랐다.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은 무의식과 꿈을 탐구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주요 방법은 자동기술법(automatism)과 꿈의 시각화였다. 무의식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논리적 의식의 통제를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따라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글을 쓰거나, 손(육체)이 이끄는 대로 형상을 그리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앙드레 마송(Andre Masson, 1896~1987)은 주제나 구도 등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몸이 이끄는 대로 선을 그었다(<오토마틱 드로잉>(1924)). 그 결과 종이 위에는 추상적이면서도 생명체의 움직임이나 신체 기관 같은 형상이 드러났다.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는 종이를 나무판이나 천에 대고 그 위에 연필, 물감 등을 문지르면 사물의 표면이 드러나는 프로타주(frottage)와 물감을 두껍게 바른 후, 긁어내는 그라타주(grattage)를 고안했다. 그는 이 기법을 활용해 폐허가 된 듯한 몽환적인 도시 풍경을 그려내면서(<도시 전체>(1935~1936)) 문명과 자연, 꿈과 기억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다.

서양 문명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여겨졌지만, 20세기 전후

의 산업화와 전쟁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야만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인간은 이성과 감성, 문명과 자연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로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고, 고전주의에서 보여준 질서정연한 우주는 사라졌다. 서양 고전주의 미술에서는 사물 형태를 수학적 원근법에 근거하여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제 초현실주의는 살바도르 달리의 흐물흐물한 시계처럼 고정된 형태(상식, 관습 등)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비정형성을 드러냈다. 초현실주의의 비정형성과 우연, 다양한 표현방식은 논리와 한계를 넘어 인간을 확장하는 통로였다.

이처럼 초현실주의는 허무맹랑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닌, 고정관념을 흔들고 현실을 새롭게 보고자 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일상의 평범한 물건에 주목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대인의 생활은 대량생산된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을 교육받은 대로, 상식에 근거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의 삶은 개성과 특수성을 잃어가고, 산업사회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산업체계 속에서 사라지는 개성과 유일무이한 삶을 살리기 위해 먼저, 일상적 사물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이들은 프로이트의 ‘언캐니(uncanny, 친밀한 대상에서 느끼는 낯설고 두려운 감정)’ 개념을 빌려 일상적 물건을 예술적 수단인 ‘오브제(objet)’로 만들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 순간 무의식 속의 억압된 것이 되돌아온다. 예술에서 언캐니는 자아와 타자, 생명과 무생명,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교란하며 등장하는데, 초현실주의는 사회적으로 고정된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러한 자극을 오브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표출했다.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 1913~1985)



메레 오펜하임, <오브제(모피로 된 아침 식사)>, 1936, 털, 찻잔, 스푼, 뉴욕 현대미술관

은 <오브제(또는 ‘모피로 된 아침 식사’)>(1936)를 통해 질료와 형상 간의 고정관념을 실험했다. 작가는 찻잔, 받침, 스푼을 모피로 덧대었는데, 그러자 찻잔의 기능은 사라지고, 모피의 부드러움만 남게 되었다. 부드러운 털 때문에 이제 잔에 입을 갖다 대는 행위는 성적 의미를 내비친다. 이처럼 일상적인 것(관습적인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시될 때 우리의 일상(관습)은 균열을 일으키고, 잠재된 상상과 욕망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다. 따라서 초현실주의에 있어 오브제는 현실에 균열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한다.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는 익숙한 사물을 비상식적인 맥락에 배치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교란하며 색다른 의미를 도출한다. <개인적 가치>(1952)에서는 하늘이 방안을 감싸고 있는 듯하며, 거대한 크기의 빗과 브러쉬가 침대와 장롱 위에 놓여있다.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푸른 유리컵이 카펫 위에 당당히 서 있다.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분위기가 형성되며 불안함을 자아낸다. 마그리트는 현실과 비현실, 논리와 비논리를 교차하며 세상과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처럼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하여 공상의 세계로 이끄는 대신, 현실을 뒤집어 보게 한다. 그러고는 현실 아래에 억눌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되레 묻는다. 인간이 문명화되고 고도로 통제될수록 초현실주의는 더욱 밝게 빛난다.



르네 마그리트, <개인적 가치>, 1952, 캔버스에 유채, 80.01×100.01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INVITATION TO THE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	----------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E
	1	2	3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19:30 전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인터넷 신청)/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 부울경이 함께 하는 경남성악회 정기연주회 19:30 전석 무료/경남성악회(055-761-0916)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서트 캠퍼스 갈라콘서트 전석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 홍지수 바이올린 독주회 전석 초대/홍지수(010-1234-5678)
7	8	9	10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폐막공연 18:00 전석 3만원(1층만)/(사)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051-916-8828)			제5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공연 전석 무료/(사)이지무스(010-1234-5678)
14	15	16	17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I 15:00 전석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25회 정기연주회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서거 150주년 기념 '비제 그리고 피아노' 19:30 전석 무료/한국피아노학회(010-5773-9190) 메조 소프라노 손미숙 독창회: 슈만, 여인의 사랑과 생애 19:30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제26회 미루샘합창단 정기공연 전석 무료/여성문화회관(010-1234-5678)
21	22	23	24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II 15:00 전석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			2025 BPAM 개막식 19:30 전석 2만원(인터넷 신청)/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28	29	30	
2025 BPAM 무용쇼케이스(패키지) 14:00 전석 5천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2025 BPAM 무용쇼케이스(단일형) 17:00 전석 3천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1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I <위대한 유산> 19:30 R석 2만원, S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 19:30 전석 1만원/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010-9336-2687)	

ED	THU	FRI	SAT
	4	5	6
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Ⅱ 콘서트 19:30 제음악제 조직위원회 19:30 (010-8609-1649)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고익석 19:30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KPS 정기연주회: 라벨 탄생 150주년 기념, 프랑스 인상주의 19:30  전석 초대/K.P.S(010-7742-0556)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14:00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12	13
합창제 19:30 페리단(010-9550-4649)	 부산시립극단 제80회 정기공연 <시련>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여경 피아노 리사이틀 “Dream of Fantasy” 19:30  전석 무료/예술기획(010-4909-744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80회 정기공연 <시련>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별이 빛나는 밤에> 19:30  전석 초대/이은미(010-8277-474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기쁨의 노래들 Songs of Joy> 17:00  R석 3천원, S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80회 정기공연 <시련>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19	20
연주회 19:30 (051-320-8332)	 부산시립합창단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19:30  R석 2만원, S석1만 5천원, A석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5 최고경영자과정 원우초청 가을음악회 18:30  신라대학교(051-999-5209)	크리스토퍼 브란트 기타독주회 19:30  전석 유료/루체테음악연구소(051-513-1009)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Ⅱ 15:00  전석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Ⅴ KNN방송교향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이탈리안> 17:00  R석 3만원, S석 2만원(인터넷 신청)/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051-516-8293)
	25	26	27
30 (재)부산문화재단	2025 BPAM 초이스-파르살리아 19:30  전석 2만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2025 BPAM 연극쇼케이스 2(패키지) 15:00  전석 5천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2025 BPAM 연극쇼케이스 1(패키지) 14:00  전석 5천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2025 BPAM 초이스-장단소리 : 斷面(단면) 19:30  전석 2만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2025 BPAM 음악 14:00  전석 5천원(인터넷 신청)/(재)부산문화재단 (051-745-7228)
전시실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展 · 8월 28일(목)~10월 19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6천원,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4천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UN

MON

TUE

WE

1

2

3

7

뮤지컬 <정글북> 11:00, 14:00
대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주)하늘이엔티(02-333-9009)

8

9

10

2025 대양가을음악회 14:00
대 전석 무료/대양고등학교

14

부산국악축제 I 17:00
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010-3130-1353)

15

16

17

21

가족뮤지컬 <로보카폴리> 11:00, 14:00, 16:30
대 극단화랑(1800-6567)

22

23

24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11:00, 14:00
소 진엔터컴(1566-7356)

28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빌의 44번째 생일>
14: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051-745-7296)

29

30

ED	THU	FRI	SAT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전시실

국립한글박물관 순회전 한글실험프로젝트 <근대한글연구소>

· 9월 12일(금)~10월 31일(금)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4

부산투어 Busan-Tour(영상과 함께하는 음악)

19:30

전석 1만원/빅토리아 M 예술단(010-6245-8265)

6

뮤지컬 <정글북> 11:00, 14:00, 16:30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주)하늘이엔티(02-333-9009)

11

부산투어 Busan-Tour(영상과 함께하는 음악)

19:30

전석 1만원/빅토리아 M 예술단(010-6245-8265)

12

2025 시민뜨락축제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13

18

리차드 워트컴 장군 기념음악회 10:30, 14:00

전석 2만원/(사)부산청작오페라단(051-647-9080)

부산광역시문화상 수상자 합동공연 19:00

전석 초대/부산시문화상수상자회

(051-803-3311)

19

2025 시민뜨락축제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20

가족뮤지컬 <로보카폴라> 11:00, 14:00, 16:30

전석 6만 6천원/(주)극단화랑(1800-6567)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11:00, 14:00, 16:30

전석 4만원, 예매가 1만원/진엔터컴(1566-7356)

25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쇼케이스패키지(다원) 14:00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재단(051-745-7296)

26

2025 시민뜨락축제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27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빌의 44번째 생일>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051-745-7296)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8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Baroque'log*

with 조운성&성민제&고의석

© Sangwook Lee



시대와 감정을 잇는 감성의 로그

오는 9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바로크로그 (Baroque'log)>는 고전의 언어를 빌려 오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음악 여정이다. 바로크 음악을 중심에 두되, 그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여기의 감각으로 재구성해 낸다. 정교한 작곡과 즉흥적 표현, 전통의 미감과 현대적 해석이 공존하는 이 무대는, 클래식 문턱을 낮추고 감정의 밀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관객과 마주할 것이다.

파리넬리의 환생, 카운터테너 이동규

무대의 중심에는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있다. <팬텀싱어 4>를 통해 대중에게 다시금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이미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온 바로크 스페셜리스트다. 섬세하고도 강한 울림을 지닌 그의 목소리는 바로크 시대 특유의 극적인 감정미학을 현대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몰입을 가능하게 만든다.

장르를 가로지르는 세 아티스트의 만남

이동규와 함께 무대를 채우는 세 연주자 역시 독보적인 개성과 감각을 지닌 아티스트들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재, 기타리스트 고익석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활동해왔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장르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호흡으로 바로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크로스오버'를 넘어, 음악이 경계를 벗어날 때 가능한 진짜 감정의 만남을 증명한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바로크의 감정을 오늘의 무대로

공연에서는 헨리 퍼셀의 오페라 아리아부터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 중 명장면, 란디와 캅스베르거의 짧고 강렬한 성악곡, 프레스코발디의 묵직한 질문, 그리고 비발디의 오라토리오와 칸타타까지—바로크 시대의 다양한 작품들이 연주된다. 이 곡들은 단순히 시대적 재현이 아니라, 각 연주자의 해석과 즉흥적 변주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다시 살아난다.



바로크로그_DQ 레코딩 현장

고전을 다시 쓰는 '음악의 일기'

'Baroque'와 'log'를 결합한 제목처럼, <바로크로그>는 과거의 음악을 현재의 언어로 기록하는 하나의 일기이자 음악적 탐험이다. 고전이라 불리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지금의 감각으로 복원되고, 그 안에서 관객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익숙하지만 낯설고, 정형적이지만 자유로운 이 공연은 올 가을,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경험하게 될 무대다.

9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문의 051-607-6000

바로크의 울림을 오늘의 무대에서 만난다

글 서윤경 ANRC 이사

음악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수백 년 전 유럽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클래식 힘의 아닐까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리사이틀 <바로크로그(Baroque'log)>는 그 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시작 - 21세기의 트루바두르를 꿈꾸며

<바로크로그>는 단순한 공연 제목이 아니라, 한 음악가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이동규는 오랜 시간 세계 무대에서 바로크 음악을 탐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만나는 바로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는 2014년 프랑스의 테오르보 연주자 브루노 헬스트로퍼와의 만남을 계기로, 옛 음악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루바두르가 유럽 전역을 떠돌며 기사도와 사랑을 노래했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 이 여정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동규리사이틀 © CREDIA

이번 부산 무대만을 위한 특별한 구성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1부와 2부는 다른 편성과 음악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 1부: 이동규 & 고의석

이동규의 사촌 형이자,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의석이 함께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무대이자, 테오르보 대신 기타가 들려주는 선율은 관객들에게 보다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섬세한 기타 반주와 카운터테너의 드라마틱한 목소리가 만나, 초기 이탈리아 바로크 아리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 2부: 이동규 & 조운성, 성민제

후반부 무대는 한층 풍성한 앙상블로 펼쳐집니다. 천부적인 재능의 두 아티스트,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과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가 함께하며, 비발디와 퍼셀, 몬테베르디의 바로크 걸작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빛납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표현력과 드라마를 강조한 연주로, 바로크 음악이 가진 자유와 독창성은 지닌 채,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오는 음악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목소리

이동규는 독학으로 카운터테너의 길을 걸어온 특별한 성악가입니다.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뉴욕 조지 런던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파리넬리의 환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비엔나, 마드리드, 밀라노 라 스칼라 등 세계 정상의 오페라극장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발매한 워너클래식 데뷔 앨범 ‘드림퀼터(Dream Quilter)’는 플래티넘 판매고를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어 발표한 두 번째 앨범 ‘바로크로그(BaroQ’Log)’는 카운터테너의 본향인 바로크 시대 아리아들을 모아,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입힌 새로운 시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앨범 모두 고음악, 바로크 음악을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워너클래식 산하 에라토 레이블로 출시되며 또 한 번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크 아리아의 진수를 경험하는 시간

이번 부산 공연은 “바로크 아리아의 진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초기 이탈리아 바로크의 숨은 명곡부터, 퍼셀과 비발디의 친숙한 작품까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은 17·18세기 유럽의 울림을 오늘의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출한 편성으로 선보이는 1부 무대에서는 바로크 음악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도드라지고, 2부에서는 현대적 감각과 즉흥성이 더해진 새로운 해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객에게 전하는 초대

카운터테너 이동규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귀와 마음으로 BaroQ’Log에 로그인해 주십시오. 함께 음악의 진화 여정을 경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리사이틀이 아니라, 바로크 음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이 여행에 동행해 주신다면, 오래된 선율이 지금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카운터테너 이동규 리사이틀 <바로크로그(Baroque’log)>는 고전과 현대, 전통과 실험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고의석의 기타, 조운성과 성민제의 풍성한 앙상블,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이동규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바로크 아리아의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부산 관객 여러분, 바로크 스페셜리스트인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안내하는 바로크의 아름다움과 오늘의 감각이 만나는 이 멋진 향해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립극단 제80회 정기공연 시련(The Crucible)

부산시립극단이 오는 9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중극장에서 제80회 정기공연으로 아서 밀러의 대표작 <시련(The Crucible)>을 무대에 올린다. 창단 25여 년을 넘어선 부산시립극단이 80번째 정기 무대로 선택한 작품이 아서 밀러라는 점은 특별하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보편적 질문을 다시금 꺼내며, 오늘의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삼기 때문이다.

<시련>은 17세기 말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에서 실제로 벌어진 마녀재판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한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의혹과 불안이 집단적 광기로 확산되면서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고, 개인의 명예와 진실이 왜곡되어 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낸다. 욕망과 질투, 종교적 신념과 이념적 갈등이 얹히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불신과 공포 속에 잠식되는 모습은 시대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보편적 풍경으로 다가온다.

특히 주인공 존 프록터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객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대목이다. 허위 자백을 강요받던 그는 끝내 “그것이 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자신의 이름과 양심을 지키고 죽음을 택한다. 이는 집단적 압력과 권력의 폭력 앞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거짓을 거부하는 용기의 가치를 상징한다. 극이 발표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름’과 ‘진실’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물음으로 다가온다.

아서 밀러는 20세기 미국 연극사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사회적 양심으로 불린 작가다. 그는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의 광풍을 직접 경험하며 이 작품을 집필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개인적 이익이 결탁한 사회에서



<시련> 연습사진

어떻게 광기와 마녀사냥이 발생하는지를, 17세기 세일럼 사건을 빌려 고발한 것이다. 1953년 초연 당시부터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시련>은 지금도 꾸준히 공연되며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권력과 집단적 두려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묻는 보편적 비극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금 고전의 힘을 확인하려 한다. 시대를 넘어 계속 읽히고 공연되는 이유는, <시련>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집단적 편견과 증오가 확산되는 현대 사회의 풍경은 세일럼 마을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극단은 이를 통해 문학과 연극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무겁고 날카로운지를 관객과 공유하려 한다.

제80회 정기공연이라는 이정표적 순간에 올리는 <시련>은 부산시립극단이 고전 레퍼토리를 새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동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진실,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성찰을 촉발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번 공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월 11일 목요일~9월 13일 토요일 목금 오후 7시30분/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파반느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으로 빛어내는 깊은 감성의 밤

다가오는 9월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제77회 정기연주회 <파반느>가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갈고닦은 음악적 기량과 표현력을 무대 위에서 온전히 발휘하는 자리로, 예술적 감성과 기교가 어우러진 세 곡의 명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백승현 지휘자가 맡고,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황건영이 함께한다. 라벨의 서정적이고 섬세한 색채를 담은 두 작품과 쇼스타코비치의 장엄하고 강렬한 교향곡 제5번이 한 무대에서 울려 퍼질 예정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명곡들을 아우르는 음악적 여정을 통해 단원들은 한층 더 깊어진 음악성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이다. 1899년 작곡된 이 작품은 16세기 스페인의 궁정 무곡 파반느를 라벨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조용히 흐르는 선율은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잔잔한 그리움을 자아내며, 단원들의 정제된 앙상블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피아니스트 황건영이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를 협연한다. 재즈적 색채, 서정적인 선율, 폭발적인 에너지가 세 악장에 걸쳐 펼쳐지며 라벨 특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느낄 수 있다. 황건영은 이 협주곡의 복합적인 색채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깊이 있는 해석을 선보일 예정이다.

후반부에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인 '교향곡 제5번'이 무대를 장식한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1937년 스탈린 체제 하에서 발표된 곡으로, 당시 소련 당국과의 긴장 속에서 작곡되어, 작곡가 본인은 이 곡에 "당국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답변"이라는 설명을 붙인 바 있다. 단원들은 이 곡을 통해 강렬한 비극성과 웅장한 드라마,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승리의 외침이 담긴 음악 속 감정을 층층이 탐구하며, 진정성 있는 해석과 몰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본질적 가치를 향한 도전이자 성찰의 시간이다. 청년 연주자들이 지닌 패기와 섬세함이 클래식 음악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한층 성숙해진 기량과 뜨거운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다.



지휘 백승현



피아노 황건영



9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기쁨의 노래들(Songs of Joy)

새로운 100주년을 향한 출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9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67회 정기연주회 <기쁨의 노래들(Songs of Joy)>를 개최한다. 1973년 창단해 지난 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합창단은 이번 무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주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기쁨의 노래들’이라는 제목처럼, 무대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친 일상에 위로를 전하고 여유를 선사할 수 있는 선율들로 가득 채워진다. 지난 7월 진행된 하계합창캠프를 통해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화합을 다진 합창단은, 깊이 있는 고전합창에서부터 흥겹고 친근한 민요 무대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준비해 관객과 만난다.

1부는 국현 작곡 ‘구원을 위한 희생(O Salutaris Hostia)’로 장엄하게 문을 열며, 리하즈 두브라의 ‘찬양하라(Laudate Dominum)’, 비벌리 패트의 ‘찬미하라(Exaudi! Laudate)’ 등 고전 합창곡들을 통해 순수하고 깊은 울림의 화음을 전한다. 이어 윤학준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노래가 만든 세상’과 손민혜의 ‘Show me a smile’, ‘평화의 춤’이 무대에 오른다. 소년소녀합창단 특유의 생동감과 발랄함이 묻어나는 이 곡들은 화려한 안무와 결합해 듣는 재미와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특별출연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이 청아한 음색으로 김성태의 ‘동심초’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Les Oiseaux Dans La Charmille)’를 들려준다. 맑고 섬세한 가창이 합창 무대와 또 다른 매력을 더한다.

2부는 한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도라지타령’, ‘날 좀 보소’, ‘아리랑 놀이’ 등 익숙한 민요들이 합창과 안무로 재탄생해 관객의 흥을 돋운다. 전통 가락의 리듬감과 무대 위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 2부의 특별무대로는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평안하소서(Salve Regina)’, ‘태평가’, ‘강강술래’ 등 고품격 합창곡들을 선보인다.

공연의 대미는 윤학준의 ‘성장통’을 연합합창으로 장식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모든 출연자가 함께하는 이 피날레 무대는 제목 그대로 ‘기쁨의 노래들’을 온전히 구현하며, 무대를 가득



채우는 화음과 에너지가 객석을 휘감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미래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선율 속에서 청소년 합창의 순수함과 열정을 재발견할 수 있는 무대다. 고전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 전통의 흥겨움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기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천원, S석 2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독일 순회공연 출정 음악회 (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3회 정기연주회 <소리, 승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9월 13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제623회 정기연주회 <소리, 승천>을 연다. 이번 무대는 오는 가을 독일 순회공연에 앞서, 현지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을 부산 시민에게 먼저 소개하는 ‘프리뷰 콘서트’다. 해외 투어 레퍼토리를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만큼, 연주곡 하나하나가 부산시향의 예술성과 음악적 방향성을 집약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연주회는 한국 현대음악의 거장, 재독 작곡가 박영희의 작품 두 곡으로 문을 연다. 첫 곡 ‘소리’는 마당극과 전통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1979~80년 작으로, ‘울분’, ‘농악’, ‘향두가’ 등 한국적 정서와 소리를 현대음악 어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채록한 녹음 자료를 토대로, 사라져가는 민속적 음향을 서양 악기 편성에 녹여낸 음악 속에서 분출하는 원초적 에너지와 외부의 힘이 충돌하며 형성하는 긴장감은, 연주 내내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이어지는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성경 요한복음의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슬픔과 상실 속에서 건네는 위로와 회복의 힘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부활 서사의 재현이 아니라, 절망 속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전하는 깊은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가 중심에 놓인다.

세 번째 무대는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다. 전쟁으로 오른손을 잃은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작곡된 이 곡은, 한 손 연주라는 제약 속에서도 화려하고 중후한 오케스트레이션, 라벨 특유의 색채감이 돋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벤 김이 협연을 맡아, 절제와 폭발을 넘나드는 연주로 라벨의 세계를 그려낸다.

후반부는 메시앙과 시벨리우스로 이어진다. 메시앙의 ‘승천’은 ‘네 개의 교향적 명상곡’이라는 부제를 지닌 작품으로, 종교적 신비와 초월적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위업, 천국을 향한 영혼의 갈망, 트럼펫과 심벌즈의 환희, 그리고 하늘로 오르는 기도의 장면이 네 개 악장 속에서 장엄하게 펼쳐진다.

마지막은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7번이 장식한다. 단일 악장 구조 속에 압축된 서사와 긴 호흡의 흐름, 북유럽 특유의 고독과 숭고함이 농밀하게 녹아든 이 작품은, 독일 관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레퍼토리다.

이번 공연은 부산시향이 세계무대에 오르기 전 첫 번째 리허설이자 독일 순회공연을 앞둔 점점 무대다. 홍석원의 지휘와 벤 김의 협연, 그리고 부산시향 특유의 에너지가 어우러진 ‘소리’와 ‘승천’의 여정은, 관객들에게 유럽 공연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선사할 것이다.



지휘 홍석원



피아노 벤 김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부산콘서트홀 051-640-8888

부산시립교향악단 독일 순회공연 출정 음악회 (2)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MUSICA VIVA>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독일 순회공연을 앞두고 준비한 두번째 특별무대는 오는 17일 (수)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무지카 비바(MUSICA VIVA)>이다. 지휘에는 홍석원이 나서며, 협연 무대에는 독일 출신 비올리스트 닐스 뮌케마이어와 한국의 대표적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정원영이 함께한다. 전석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독일 투어를 앞둔 예열의 장인 동시에, 곧 있을 낙동아트센터의 개관을 알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낙동아트센터는 서부산권 최초의 대규모 전문 공연장으로, 부산 문화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정식개관 전 시연공연 중 하나로 시립교향악단의 해외 순회 프리뷰로 채운다는 사실은, 이곳이 앞으로 세계와 지역을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고한다. 관객에게는 단순한 음악회 이상의 경험, 즉 도시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열리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프리뷰 무대의 첫 시작은 13일 부산콘서트홀 공연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박영희의 작품들이다. '소리(Sori)',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높고 깊은 빛'으로 무대를 연다.

이어지는 무대로 프랑스의 거장 올리비에 메시앙의 '승천, 네 개의 교향적 명상곡'을 선보인다.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주제로 한다. 1악장 '그리스도의 위엄'은 장중한 화성과 오르간적 음향으로 시작되며, 2악장 '하늘을 갈망하는 영혼의 할렐루야'는 경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3악장 '트럼펫과 심벌즈의 할렐루야'는 찬란한 관현악적 색채를 통해 신비로운 환희를 표현하고, 4악장 '하늘로 오르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긴 호흡의 선율이 영적 상승을 그려낸다. 부산시향이 가진 섬세한 색채감과 웅대한 양상불이 빛을 발할 작품이다.

공연의 마지막은 핀란드 국민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7번이다. 단일 악장으로 쓰인 독창적 교향곡으로, 시벨리우스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응축과 절제, 그리고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다.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어두운 울림에서 시작해 점차 상승하는 구조, 거대한 브라스의 어울림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마치 북유럽의 대자연이 펼쳐지는 듯한 장관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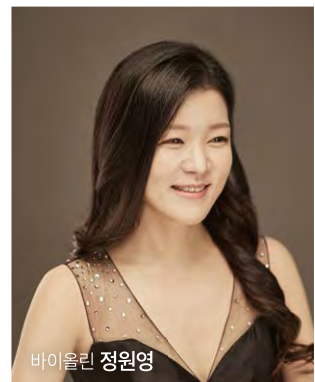
'무지카 비바(MUSICA VIVA)'라는 부제는 살아 숨 쉬는 음악, 동시대와 호흡하는 음악을 뜻한다. 부산시향은 이번 무대를 통해 창작과 전통, 지역과 세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독일 순회에 앞서 부산 시민들이 그 첫 울림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공연을 더욱 뜻깊게 만든다.



지휘 홍석원



바이올린 닐스 뮌케마이어



바이올린 정원영

9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입장료 전석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송 오브 아리랑

극복과 치유의 선율, 아리랑

9월 저녁,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새로운 음악적 언어로 풀어낸 대규모 합창·관현악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광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U.K.O)가 연주를 맡는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리랑이 품은 ‘극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대를 넘어 울림을 전한다.

작품은 총 6부로 구성된다. 제1부 ‘서곡’은 경기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힘찬 팡파레와 함께 전체 곡의 주제를 예고한다. 이어지는 제2부 ‘아리 아라리’에서는 강원도 정선 아라리, 긴아리랑, 평창 아라리 등 강원도 특유의 메나리 선법이 담긴 선율을 소박하고 애절하게 풀어내며, 설화를 곁들여 정서적 깊이를 더한다.

제3부 ‘밀양의 전설’은 소프라노와 여성합창이 중심이 되고, 국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져 무녀의 살풀이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날 좀 보소’ 민요가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활기찬 리듬과 합창이 맞물린다. 제4부 ‘진도의 소리’는 진도 아리랑의 기원을 임진왜란 시기 강강수월레와 이순신 장군의 전설에 두고, 판소리 아니리와 민요, 국악 양상블이 함께 육자배기의 진한 슬픔을 노래한다.

제5부 ‘뭇다 부른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와 해외 이주 동포들의 한을 담은 노래들로 구성된다. 무반주 남성합창으로 시작되는 ‘아리랑 고개는 눈물의 고개’가 울리고, ‘순이의 노래’, ‘별을 헤며’, ‘사탕수수 밭 망향의 편지’가 이어지며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전한다. 제6부 ‘송 오브 아리랑’은 슬픔과 한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노래한다. ‘더듬’ 개념을 바탕으로 경기·정선·밀양·진도아리랑 등 30여 가지 선율을 변주해 새로운 가락으로 엮었으며, 서곡의 선율은 솔리스트·합창·관현악으로 확장된다. 마지막에 어린이 합창이 부르는 ‘Let’s sing a song of arirang’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아리랑이 지닌 문화적 유산과 기억을 현재에 되살리는 장이 될 것이다. 전통 민요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화성과 편곡, 그리고 대규모 합창과 국악·서양 악기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창출한다. 관객들은 한민족의 애환과 희망이 뒤섞인 선율 속에서, 아리랑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이유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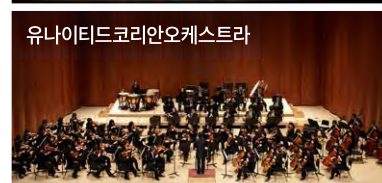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9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1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I <위대한 유산>

전통을 넘어 미래로, 창작국악의 울림

9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세 번째 ‘창작 위촉곡 시리즈’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종묘제례악, 범패, 동해안별신굿 등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담긴 우리 고유의 정신과 전통을 현대적 음악언어로 재해석하며,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확장을 꾀한다. 여기서 위촉작곡가 최승식, 조원행, 이정호, 김성국이 각각의 시선으로 풀어낸 신작 4편이 초연된다.

첫 무대는 이준호 편곡의 종묘제례악 보태평지악 ‘희문, 역성’이다. 조선시대 종묘 제례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 국가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궁중음악의 정수를 담았다. 장중한 선율이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울리며 공연의 서곡을 연다.

이어지는 최승식 작곡의 ‘희망의 울림’은 코로나19 이후의 침체와 상실을 넘어, 다시 다가올 밝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국악관현악으로 담아낸다. 변화무쌍한 자연 풍경과 일상의 기쁨,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음악화하며, 청중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세 번째 작품은 조원행의 소아쟁 협주곡 ‘범음(梵音)’이다. 부산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보유자였던 고(故) 용운스님의 음원을 채보한 ‘지심신례’를 바탕으로, 범패 특유의 선율과 담백한 듯 힘있게 뻗어나가는 흐름을 소아쟁의 카덴차(Cadenza)에 녹여냈다. 정과 동이 대비되는 구성 속에 불교의 축원과 포교 정신, 그리고 영남범패의 특유의 힘 있는 선율미가 살아난다. 협연은 아쟁 연주자 최영훈이 맡는다.

네 번째 무대는 이정호 작곡, 류근화 협연의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다. 인간 내면의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며 자아의 심연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다. 명상과 각성이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깊고 긴 호흡의 대금 소리가 청중의 내면을 두드린다.

마지막은 김성국 작곡, 하지희 협연의 25현 가야금 협주곡 ‘푸른 신의 춤’이다. 동해안 별신굿에 등장하는 해신(海神)의 존재를 모티브로, 바다 위를 유영하듯 추는 신의 춤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해무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신의 기운, 파도와 장단이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역동성, 그리고 신성한 울림이 가야금의 섬세한 현 위에 펼쳐진다.

휴식 없이 약 80분간 이어지는 이번 무대는 ‘창작 위촉곡 시리즈’의 정점이라 할 만하다. 고유의 문화유산을 단순 재현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감각과 호흡으로 되살린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아쟁 최영훈



대금 류근화



가야금 하지희



9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5 하반기 시민뜨락축제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5 시민뜨락축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열린다. 커넥트현대, 부산시민회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등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며, 장르와 규모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선보인다.

9월 6일(토) 커넥트현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지현, 테너 류무룡의 팝페라 듀오 '팝페라 휴'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무대를 펼치고,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연주로 무대를 잇는다.

12일(금)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성악가팀 'Obblivoce'가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재즈팀 '레트로스펙트'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

19일(금)에는 탱고팀 '친친탱고'와 포크팀 '현미밴드', 26일(금)에는 타악팀 '청아 앙상블' 클래식 기타·플루트·성악팀 '아티스타'가 무대를 장식한다.

10월 11일(토) 롯데아울렛 동부산점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17일(금)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국악팀 '뜨락'과 팝페라 그룹 '블랑누아', 24일(금)에는 클래식 '라이크앙상블'과 부산STAPS 탭댄스팀이 크로스오버 무대를 펼친다.

올가을, 부산의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무심코 걷던 길목에서, 쇼핑 하던 휴식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 짧은 산책 속에서 예술과 마주하는 순간. '2025 시민뜨락축제'는 일상과 예술을 잇는 다리가 되어, 가을 하늘만큼이나 풍성한 감동을 선물할 것이다.

프로그램 일정

9월 6일(토) 오후 2:00~3:00

커넥트현대

팝페라 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9월 12일(금) 오후 12:10~13:0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Obblivoce, 레트로스펙트

9월 19일(금) 오후 12:10~13:0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친친탱고, 현미밴드

9월 26일(금) 오후 12:10~13:0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청아 앙상블, 아티스타

10월 11일(토) 오후 2:00~3:00

롯데아울렛동부산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0월 17일(금) 오후 12:10~13:0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뜨락, 블랑누아

10월 24일(금) 오후 12:10~13:0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라이크앙상블, 부산STAPS 탭댄스



9월 6일 토요일~10월 24일 금요일

커넥트현대, 부산시민회관,

롯데아울렛동부산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에 참가할
부산 지역 內 초·중·고교 청소년 합창단을 모집하여 뜻깊은 합창제를 열고자 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공연명 :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 참가 모집부문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합창단 15~20개 단체 *부산 지역 구립소년소녀합창단 포함

2. 공연일시 및 장소

- 공연일시 : 2025년 10월 31일(금) ~ 11월 1일(토) 평일 19:00, 주말 16:0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8월 26일(화) ~ 9월 16일(화) 14:00까지
- 접수처 : thjjang77@bscc.or.kr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2. 연주 곡명 및 악보 제출 (입·퇴장 시간 포함 10분 이내)
3. 프로필(최근 3년), 단원명단
4. 사진(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각 1장

4.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 심의일자 : 2025년 9월18일(목)
- 선정기준 : 활동 기간, 단원 구성, 연주 횟수, 곡목 수준, 준비정도 등을 근거로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
- 참가단체 합격발표 : 2025년 9월23일(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새소식
- 참가단체 사전회의 : 2025년 9월25일(목) 17:00 부산문화회관 접견실

5. 유의사항

- 피아노 반주만 사용 가능. (단, 타악기 사용 가능)
- MR, AR은 사용할 수 없음.
- 개별 단체 연주곡목 외 연합 합창곡을 함께 연주할 예정임.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소년소녀합창단 담당자 051-607-3131

2025 제16회

세계 정상 교향악단과 앙상블의 클래식 음악축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9.2.(화)~9.23.(화)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클래식 소울
Soul in Classics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후원 · 협찬 BNK 부산은행 부산문화재단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부산일보사 K 국제신문

boeun (주)보은금융

IPC (주)아이에프씨

산통 통증클리닉
SINTONG PAIN CLINIC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Tel. (051)516-8293~4 Fax. (051)513-8252 E-mail. bmimf@hanmail.net www.bmimf.co.kr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Soul in Classics ‘클래식 소울’



9월 2일(화)~23일(화)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등
부산시내 일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4



부산 가을, 클래식의 영혼으로 물들다

부산의 가을이 다시 한 번 클래식의 울림으로 물든다. 2010년 첫 무대를 올린 이후 매해 세계적인 연주자와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며 국제 음악제로 성장해 온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한다.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Soul in Classics - 클래식 소울’이라는 주제로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제는 고전 속에 숨은 ‘영혼의 울림’을 탐구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감동을 전한다.

올해는 특히 의미가 깊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해운대문화회관 등 기존 공연장은 물론, 새롭게 문을 여는 부산콘서트홀과 낙동아트센터에서의 첫 무대가 예정돼 있다. 두 공간은 앞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음악제는 그 상징적인 출발을 함께한다. 더 붙여 5회의 메인콘서트, 2회의 앙상블 콘서트, 4회의 프롬나드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스페셜 콘서트까지—도시 전역을 무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해져 부산의 9월을 클래식의 결로 촘촘히 채운다.

Soul in Classics

장르를 넘어, 영혼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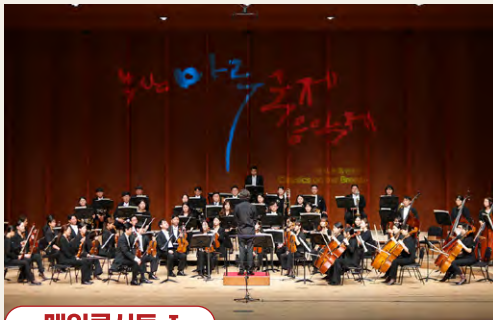
‘클래식 소울’이라는 주제는 장르적 구분을 넘어, 인간 내면 깊숙이 울림을 주는 감정과 이야기에 주목한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위로, 경이와 침묵이 공존하는 클래식 음악은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본질을 묻는다. 올해 무대에서는 각국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해석으로 고전을 재탄생시켜, 과거의 음악이 오늘의 언어로 되살아나는 현장을 만나게 된다.

지휘 구스타보 레베로 베버

피아노 알렉산더 야코블레프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음악제의 서막은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연다. 세계 각국 정상급 연주자들이 모인 이 오케스트라는 2014년부터 꾸준히 음악제 무대에 올라 '마루 사운드'라는 고유 색을 구축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멕시코 출신 지휘자 구스타보 레베로 베버가 지휘봉을 잡는다. 그는 오르케스트라 후베닐 우니베르시타리아 에두아르도 마타를 창립해 세계적인 악단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낙소스 음반과 국제 투어로 명성을 얻었다.

협연은 '사유하는 비르투오소'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야코블레프가 맡는다. 30개 이상의 국제 콩쿠르 1위 경력을 지닌 그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통해 서정과 장엄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며, 이어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비창'은 깊은 울림으로 개막 무대를 장식한다.

메인콘서트 I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인 이 콘서트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최영선이 이끈다. 2003년 창단한 악단은 세계 정상급 솔리스트와의 협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와 김연아 아이스쇼 음악으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최영선 지휘자는 비엔나와 그라츠에서 수학하고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200회 이상 호흡을 맞춘 지휘자다.

이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네루다, 파스쿨리, 시벨리우스, 브람스, 베토벤 등 다채로운 협주곡이 연이어 연주된다. 오보에 이지원·게서연, 트럼펫 최태강, 소프라노 김승현, 바이올린 현헬렌·신예환, 플루트 김나영, 피아노 김지현 등 젊고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 각자의 기량을 선보인다.

지휘 최영선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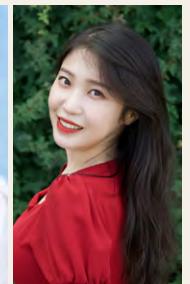


오보에 이지원

트럼펫 최태강

오보에 게서연

소프라노 김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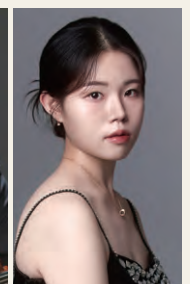


바이올린 현헬렌

플루트 김나영

바이올린 신예환

피아노 김지현



메인콘서트 Ⅲ



지휘 인 종지에



바이올린 다비데 알로냐



샤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샤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국 최초의 민간 경영 상근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샤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XPO)가 부산을 찾는다. 1998년 창단 이래 100여 개 도시에서 2,000회 이상의 무대를 올렸으며, 클래식 보급과 시민 문화 향유에 크게 기여한 단체다.

지휘는 25세의 젊은 거장 인 종지에가 맡는다. 2023년 피텔베르크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2025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최종 라운드 진출 등 눈부신 이력을 쌓으며 유럽과 아시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올린 협연은 이탈리아 출신 다비데 알로냐가 맡아 비발디 사계를 들려주며,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로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메인콘서트 Ⅳ

부산시립교향악단

1962년 창단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향악단이다. 정통 클래식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특히 라벨 관현악곡 전곡,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등 기획 시리즈를 완주해 화제를 모았다.

지휘는 2024년부터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홍석원이 맡는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그는 독

일·오스트리아 오페라 무대에서의 성공과 함께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지휘로 명성을 얻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영희의 소리(Sori), 여인과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Frau, warum weinst Du? Wen suchst Du?), 라벨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메시앙 승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7번을 연주한다. 협연은 ARD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벤 김이 맡아, 왼손 하나로 그려내는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펼친다.



지휘 홍석원 © 황필주



피아노 벤 김



부산시립교향악단





메인콘서트 V

KNN방송교향악단

지역 방송사 최초 창단 교향악단인 KNN방송교향악단은 2016년 창단 이후 클래식 대중화와 지역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서희태 음악감독과 함께 정기연주, 해설음악회, 오페라, 발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협연한다.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 종신 악장이자 세계 주요 페스티벌과 협연 경력을 지닌 그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또한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서곡,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가 프로그램을 장식하며, 밝고 경쾌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지휘 서희태



바이올린 김재원



KNN방송교향악단

부산, 세계로 열린 음악의 도시로

이번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개막부터 폐막까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협연자들이 부산을 클래식 선율로 물들이는 22일이다. 'Soul in Classics'라는 주제 아래, 음악이 가진 영혼의 울림을 시대와 공간을 넘어 경험하게 될 이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가 왜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감동을 전할 것이다.

주요 일정

메인콘서트

- M1 9월 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M2 9월 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M3 9월 12일(금) 오후 7:3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M4 9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콘서트홀
- M5 9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콘서트홀

양상블콘서트

- E1 9월 7일(일) 오후 2:00
캠퍼스 D 고촌홀
- E2 9월 23일(화) 오전 11:00
사상문화원 다누림홀

프롬나드콘서트

- P1 9월 10일(수)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P2 9월 11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P3 9월 16일(화)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P4 9월 16일(화)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스페셜콘서트

- S1 9월 9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S2 9월 17일(수) 오후 7:00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 S3 9월 18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S4 9월 19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S5 9월 19일(금)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9월 14일(토), 20일(토), 21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리다 칼로, 그녀의 삶과 예술을 만나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展

일시 8월 28일(목) ~ 10월 19일(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성인 6천원,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4천원,
36개월 미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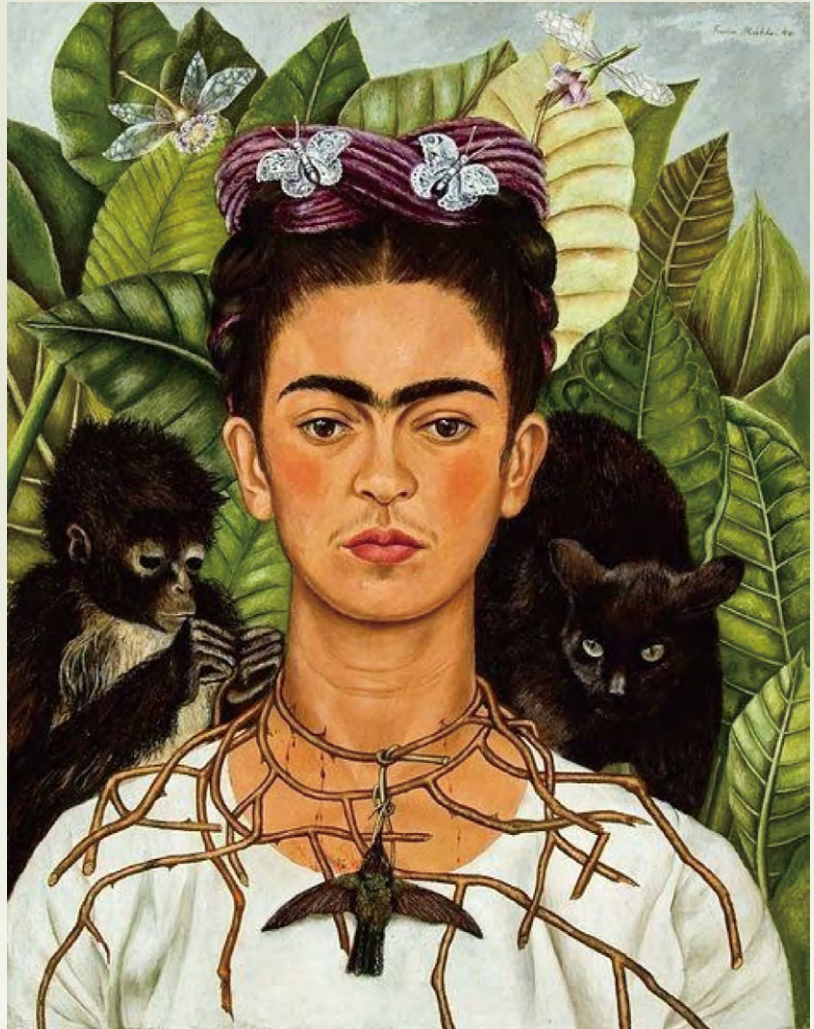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8월 28일(목)부터 10월 19일(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예술세계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열린다. 이번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展>은 그녀의 주요 작품을 레플리카(replica) 형태로 선보이며, 생애와 작품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일기 등 다양한 기록 자료를 함께 전시한다.

프리다 칼로는 단순히 멕시코의 국민화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상징적인 여성 예술가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여섯 살에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다리를 절었고, 18세에 당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척추와 골반, 갈비뼈, 다리 등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30여 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침대 생활을 견뎌야 했다. 여기에 남편이자 멕시코의 거장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배신, 재결합과 이별을 반복하며 그녀의 정신을 깊이 소모시켰다.

그럼에도 프리다 칼로는 이 모든 아픔을 예술로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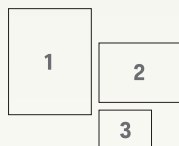


화시켰다. 그녀의 화풍에는 멕시코 전통문화와 원주민 복식, 강렬한 색채가 녹아 있었으며, 초현실주의적 상상력과 자기 고백적 성찰이 결합되어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55점의 자화상은 그녀의 고통, 사랑, 정치적 신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칼로는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을 그린다. 그것은 나 자신”이라고 말했으며, 그 말처럼 작품

속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번 전시는 그녀의 주요 작품을 생애 순서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소개한다. 1939년, 리베라와의 결혼이 파장에 이르렀을 때 그린 '두 명의 프리다'에서는 서로 다른 복장을 한 두 명의 프리다가 손을 맞잡고 있지만, 심장이 드러나 있는 모습과 피가 흐르는 상징적 장면이 이별의 상처를 말해준다. 1940년의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은 고통과 상처를 상징하는 가시와 검은 고양이, 죽은 새 등이 등장하며, 그녀의 삶을 둘러싼 긴장과 불안을 보여준다.

1944년 작품 '부러진 척추'에서는 쇠 부목으로 고정된 척추와 황량한 배경 속에 홀로 선 자신을 그려, 육체적 고통의 극한을 시각화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해에 그린 '비바 라 비다'는 수박을 주제로, 죽음을 앞두고서도 "삶이여 만세(Viva La Vida)"를 외치는 그녀의 강인함을 전한다.



- 1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1940
- 2 비바 라 비다, 1954
- 3 상처입은 사슴, 1946

전시에는 회화뿐 아니라 프리다 칼로의 일기와 사진, 기록물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80여 점에 달하는 레플리카 작품들은 특수 제작 과정을 거쳐 원작의 붓터치와 색감을 최대한 재현했다. 원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문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원작 감상의 아쉬움을 보완하며 교육적·문화적 가치 또한 크다.

프리다 칼로는 생전에 여성의 몸과 정체성, 고통과 사랑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당시의 예술계와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의 작품 속 인물들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묘하며, 때로는 당당하게 관람자를 마주한다. 그 시선 속에는 스스로를 하나의 주체로 세우고자 했던 의지가 서려 있다. 이런 이유로 칼로는 오늘날에도 페미니즘, 자아정체성, 문화다양성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시간을 넘어, 한 예술가의 삶과 시대,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인간 정신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녀가 남긴 작품 하나 하나에는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과 원색의 향연,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그림자가 공존한다. 칼로의 작품은 개인적인 서사임과 동시에 민족과 여성, 나아가 인류 보편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또한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프리다 칼로 자화상 그리기 및 꾸미기' 체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표현하며 칼로의 창작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10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시공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예술가 프리다 칼로, 그녀의 강렬한 시선과 고백이 담긴 화폭 앞에서 관객은 어느새 멕시코의 한 방에 들어앉아, 예술이 어떻게 삶을 버티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지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다.

표면 아래의 미술, 다대포를 다시 걷다

2025바다미술제 <언더커런트: 물 위를 걷는 물결>



6년 만에 다시 열린 바다미술제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5바다미술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37일간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6년 만에 다시 다대포로 돌아오는 이번 전시는 낙동강 하구와 남해가 만나는 지형의 생태적,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한 야외 전시로, 현대미술과 자연이 만나는 실험적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언더커런트, 바다의 리듬을 그리다

올해 바다미술제의 주제는 <언더커런트(Undercurrents): 물 위를 걷는 물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그 속의 리듬, 그리고 생태적 대사작용을 탐색하며 인간과 자연, 사회를 연결하는 지점에 집중한다. ‘밑 물결(Undercurrent)’이라는 키워드는 해양 생태계의 물리적 움직임을 넘어, 비가시적인 힘들이 사회와 생태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메타포로 작동한다. 해류와 암류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지닌 흐름들, 그리고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연쇄적 변화가 이번 전시의 주된 관찰 지점이다.



2025바다미술제 다대포해수욕장 전경 @ 김시라

일시 9월 27일(토) ~ 11월 2일(일)

장소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문의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www.busanbiennale.org



2025바다미술제를 대표하는 메인 디자인은 ‘부표’를 주요 이미지로 삼는다. 해수면에 떠 있는 부표, 모래에 반쯤 묻힌 부표, 일몰 풍경 등 다양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시각 요소는 표면과 심층, 안정과 불안정 사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위쪽은 단순하고 정적인 구성, 아래쪽은 패턴과 질감이 복잡해지는 디자인 구조를 통해 바다의 이면과 변화 가능성을 함축한다. 기하학적이면서 유기적인 타이포그래피는 바다의 예측 불가능성과 흐름의 리듬을 담아낸다.

지형과 생태를 따라 걷는 전시

전시는 김금화, 베르나 피나(Bernard Vienat), 김사라 세 명의 공동 전시감독이 이끈다. 이들은 예술, 생태, 건축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기획자로, 다대포의 생태와 지형을 다학제적으로 해석하며 장소 특정적이고 감각적인 예술 경험을 설계하고 있다. 세 감독은 지난 3월 다대포 해변과 물운대, 고우니 생태공원, 을숙도 등 주요 거점을 직접 답사하며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조사했다. 특히 모래톱이 끊임없이 생성·변형되는 다대포의 풍경은 전시 주제와 맞물리며 작품 구상의 중요한 영감이 되었다.

함께 만드는 예술, 함께 느끼는 생태

이번 바다미술제는 물운대 산책로부터 다대포 해변, 고우니 생태길을 따라 이어지는 여정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해안의 경계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그 속에 설치된 작품

을 통해 지형, 물, 바람, 모래 등 자연의 순환을 예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설치미술과 조각, 비디오, 참여형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은 자연과의 공명,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질문한다.

관람의 차원을 넘어,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 워크숍과 작품 연계 워크숍, 아티스트와의 대화, 현장 퍼포먼스 등이 전시 기간 동안 함께 운영되며, 바다와 생태, 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다미술제는 늘 그랬듯 ‘함께 만드는 예술’이라는 정신을 통해 예술적 감상뿐 아니라 생태적 실천과 감수성의 확장을 지향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해변 전시를 넘어 다대포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해석하며,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 예술과 지역이 만나는 새로운 감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예술을 매개로 재해석하는 바다미술제의 실험은, 동시대 미술이 지닌 사회적, 생태적 가능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87년 시작되어 매 홀수 해마다 개최되는 바다미술제는 부산의 대표적 예술 행사이자, 국내 유일의 해변 기반 현대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바다는 열린 공간을 배경으로 대중에게 예술의 접근성을 확장시켜온 이 축제는, 올해도 예술과 자연, 지역이 어우러진 감각의 경험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의 소리, 브람스로 울리다 IV

Sound of Busan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글 김정화 음악평론가

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한 ‘브람스 사이클’이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7월 25일, 마지막 무대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윤상운 동의대학교 교수의 지휘로, 비올리스트 김남중과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함께했다. 후텁지근한 여름밤에도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려는 청중의 표정에서 기대와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사라진 대화의 시간, 흐트러진 서사

첫 곡으로 연주된 베버의 <오이리안테 서곡, Op. 81>은 극적 긴장과 서정적 서사가 교차하는 작품이다. 금관의 팡파르가 도입을 여는 동시에 현악은 셋잇단음표와 점음표 리듬을 교차시키며 긴장감을 직조한다. 그러나 이날은 금관의 강한 울림만이 도드라졌고, 현악은 마치 휴대폰 무음 진동처럼 뒤로 밀려 존재감을 잃었다. 라르고에서는 피아니시모 속 긴장과 완화의 대비가 살아나지 못했고, 앞줄 몇 대의 바이올린만이 간신히 이어져 울림의 심지가 꺼진 듯한 공백이 무대를 덮었다. 이어진 템포 프리모에서도 셋잇단음표와 점음표가 교차하는 현악기의 대위법적 대화와 강약 대비는 구현되지 않았다.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서사는 흐트러졌고, 서곡의 내밀한 구조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대화를 이루지 못한 음향은 작품 고유의 음악적 긴장과 응집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어진 부르흐의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협주곡, Op. 88>은 자주 다뤄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두 솔리스트가 공유하는 중음역은 대형 연주 홀에서 음향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비올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제약은 오히려 작품의 개성으로 작용한다. 화려한 기교보다 서로의 숨결을 따라 주고받는 섬세한 대화는 후기 낭만주의 특유의 서정성과 교감의 미학으로 빛난다. 하지만 이날 무대는 1악장 도입부터 오케스트라 현악의 화성이 어긋나며 불안하게 출발했고, 기대했던 앙상블은 완결된 대화가 아닌 조각난 울림으로 흩어졌다. 특히 곡 전반을 지탱하는 현악 피치카토는 두 솔리스트를 떠받치는 리듬적 맥박으로 작용하는데, 긴장과 탄력이 부족해 공허하게 흘러갔고, ‘대화적 긴장’은 힘을 잃었다. 오케스트라 아티컬레이션의 불균형도 긴장과 이완의 드라마를 약화시켰다.

무대 배치 역시 아쉬웠다. 이날 오케스트라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무대 전면으로 밀고 나와 솔리스트의 음향 균형을 가렸으며, 비올라 앞에 세워진 마이크는 울림을 편향시켜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렸다. 결국 두 솔리스트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고, 정돈되지 못한 오케스트라 음향은 듀오의 대화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김남중과 백동훈은 각자 성실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김남중은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내면적 서사를 그려냈고, 백동훈은 선율과 감정을 유연하게 풀어냈다. 연주의 희소성과 두 연주자의 시도는 그 자체로 값진 순간이었다. 다만 지휘자의 해석과 오케스트라의 음향적 불균형은 이 작품의 본질인 ‘둘의 대화’를 온전히 피어나지 못하게 했다.

의도와 실행 사이

마지막으로 연주된 브람스 <교향곡 제3번, Op. 90>은 ‘자유 안에서 행복’을 상징하는 F-Ab-F 화성적 동기로 문을 열며, 걱정과 절제의 긴장 속에서 인간적 화해를 노래한다. 그러나 이날 연주는 각 파트의 음향이 서로 경쟁적으로 흩어지며 내적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긴장감을 잃었다. 현악과 목관의 대화는 외적 에너지만을 앞세운 탓에



교차하지 않았고, 브람스 특유의 절제는 무너졌다. 2악장에서 서정적 선율은 응집력이 부족했고, 오보에와 플루트의 대화는 자신감 없이 어긋나 흐름을 끊었다. 현악과 목관의 밸런스 역시 끝내 조화를 이루지 못해 감정의 농밀함 대신 산만함만 남겼다. 3악장에서는 첼로 파트가 첫음을 놓치며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게다가 쓸쓸한 왈츠풍의 서정성은 과잉된 낭만성에 묻혀 단조롭게 들렸고, 색채의 대비를 놓친 감정은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악장은 브람스 특유의 고요 속 내적 긴장과 화해의 철학이 응축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날 연주는 앙상블이 흐트러지며 밋밋하게 끝맺고 말았다. 브람스가 의도한 성찰과 인간적 화해는 구현되지 못했고, 음악은 유기적 흐름을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청중은 결국 ‘조화의 어려움’이라는 예술의 역설적 한계와 마주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독일 낭만주의가 지닌 극적 긴장에서 인간적 대화, 교향적 서정으로 확장되는 궤적을 담으려 한 듯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완결된 서사로 형상화되지 못했고, 세 작품의 유기적 연결 또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청중은 “왜 이 세 곡을 한 무대에 배치했는가”라는 질문을 품었을 지도 모른다. 여기에 지휘자의 과도한 제스처와 무대 배치 설정은 음악적 집중을 분산시켜, 기획 의도와 실제 사이의 괴리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결국 음악이 지닌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살리지 못한 채,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흐름이 완성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고유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부산

부산문화회관의 ‘브람스 사이클’은 몇몇 아쉬움을 남겼으나, 그 시행착오는 향후 기획과 설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지역 연주자들을 무대에 세우고 다양한 시도를 꾀안으려는 철학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최고만을 좇는 풍토 속에서도 지역성과 인간적 연결을 가꾸려는 시도는 공동체적 예술 경험의 본질을 일깨운다. 공공극장은 유명인만을 내세운 ‘과시적 소비의 장’이 아니라,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장’이어야 한다. 세계적 명성과 화려한 이벤트는 상업 극장에 맡겨도 충분하다. 공공극장의 역할은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 시스템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를 키워내는 데 있다.

예술은 완벽함만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불완전한 순간조차 함께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치는 더욱 빛난다. 이번 기획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부산은 ‘소비의 도시’를 넘어 ‘창조와 공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고유한 음악적 풍경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공공극장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도시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그 중심에 선 부산문화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과 공동체의 미래를 잇는 다리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브람스 음악처럼, 부산만의 시간 속에서 부산만의 예술이 익어가길 바란다. Festina lente!

담담하고 당당하고 단단한 질문을 던지는 감성 충만한 춤

‘Dance Project 엇’의 <담담하게 당당하게 단단하게>

글 이상현 춤 비평가

세상의 균형은 중심점에서 살짝 엇나가 있다. 완벽한 평형은 없다. 얼마나 엇나가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창조적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불균형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다. 지난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Dance Project 엇’의 <담담하게 당당하게 단단하게>(안무 김미란, 출연 류가빈, 최윤정, 하현정, 박지현, 김지윤, 임선영, 김주연, 광미소, 김서안, 특별출연 송영업)의 무대가 있었다. 단체는 ‘엇은 단순하게 비껴선다는 의미를 넘어, 고정된 틀과 시선을 벗어나 새로운 움직임과 해석을 찾으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라고 소개한다. 제목을 풀어보면 자음 디글(ㄷ)의 연속이다. 이를 ‘ㄷ, ㄷ, ㄷ, ㄷ, ㄷ, ㄷ는 긴 시간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구성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단단하게’ 등 세 장으로 짜였다. 이 구성은 시간 흐름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선형적 진행은 아니다. 곳곳에서 맴돌며 버티고 흔들리는 ‘여자의 삶’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작품은 여성의 보편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간다. 특정한 사건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의 탄생부터 노화까지 담담하고 단단하게 펼쳐 보인다. 이 방식이 삶의 신산고초를 잘 드러내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김미란은 이를 적절한 상징을 활용해 큰 서사를 만들어 내었다.

김미란이 철저하게 계산된 상징으로 작품을 끌고 가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의 상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무대 공간이다. 무대에는 상·하수 옆쪽에 비스듬히 세워진 벽과, 중앙에 마치 몬드리안의 구성처럼 표면 구획이 두드러진 낮은 벽이 놓여 있었다. 세 벽 모두 검은색이다. 벽들은 무대 안쪽으로 살짝 들어놓아 공간의 의도를 묻게 한다. 과연 저 곳은 ‘안’일까 ‘밖’일까? 당연히 벽 안에서 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간을 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옆 벽은 회전문처럼 움직이며 무용수가 나갔다가 곧 돌아올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단절이나 무대 공간을 축소해 집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출입방식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벽은 차원의 변화를 상징하며, 삶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장치였다.



또 하나의 상징은 색이다. 검은 벽과 무채색에 가까운 의상, 그리고 각자에게 배당된 천 뭉치는 일관된 인상을 만들며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여자의 삶’을 상징한다. 안정된 색조는 작품의 이미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고, 관객의 감성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게 했다.

캐릭터 설정에서도 상징적 인물을 활용한다. 김미란은 캐릭터를 통해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였다. 시작에 등장하는 소녀(김서안)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인(송영엽)은 각각 여자의 삶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상징한다. 소녀를 수시로 등장시키면서 어린 시절의 순수와 성장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과거의 자신을 돌이킨다. 소녀는 흔들리고 갈등하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반면 미래는 불분명하다. 확실한 미래는 늙어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노인을 커튼콜 직전에 등장시켜 노인답게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무도 그 노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주제에 매우 적절한 상징적 등장이었다.

천의 상징성은 작품의 핵심이다. 천은 단순한 소품을 넘어 하나의 캐릭터가 된다. 첫 장면에서 중앙으로 내려온 천에 한 덩어리가 싸여있다. 마치 곤충의 고치를 연상하게 하는 형상에서 손과 발이 서서히 나오면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는 출산이라기보다 사회적 젠더로서의 여성 탄생을 상징한다. 이후 천은 굴레가 되고 짐이 되며, 삶 속 타자이자 또 다른 자아로 나타난다. 무대 미장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작품을 끌고 가는 핵심 캐릭터인 것이다.

춤 역시 강한 상징성을 지닌다. 화려하거나 정교한 기교 없이 관객의 정서를 톡 건드린다. 춤은 여성성이 가득하다. 그 여성성은 예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단단하다. 부드럽지만 삶의 풍파에 무너지지 않는 ‘여자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며, 조명과 음악 등 무대 요소와 어우러져 지극히 감성적이면서도 간결하고 충만한 울림을 자아내었다.

김미란은 최근 작품 <위로(We-路)>, <중중독>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여자의 삶에 관한 고민을 스스로 표현해왔다. 이번 작품은 자신이 안무자로



한발 물러나, 그동안의 고민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려 하였다. 고민을 나누려 한 의도는 마지막 장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같은 옷을 입고, 머리 모양을 똑같이 한 무용수 한 명 한 명이 당당하게 이름을 밝힌다. 그 행위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외침이다. 여자라는 부류로 뭉뚱그릴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외침은 당당하고 단단하면서도 따뜻하다. 그렇게 군더더기 없는 태도로 관객에게 묻는다. “몸으로 기억하고, 침묵으로 버티며,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독백에 가까운 고민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태도다. 예술가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예민한 존재다. 그 질문에는 대답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제안이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단단하게>는 공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용수의 몸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관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삶을 꿰뚫는 단단한 울림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부산문화회관

KPS 정기연주회 :

라벨 탄생 150주년 기념,
프랑스 인상주의

일 시 | 9월 5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무지카기획 010-7742-0556


올해는 탄생 150주년을 맞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을 기리는 해다. 라벨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며, 색채감과 섬세한 질감을 중시하는 음악 세계를 펼쳤다. 인상주의는 드뷔시에 의해 정립되고 라벨에 의해 더욱 발전했으며, 그 영향은 에릭 사티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무대는 세 작곡가의 대표적 피아노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스타일 속에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다채로운 색채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메조 소프라노 손미숙 독창회

슈만, 여인의 사랑과 생애

일 시 | 9월 16일(화)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메조소프라노 손미숙의 이번 독창회는 연주자가 특별히 사랑해온 음악과 많은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명곡들로 프로그램을 꾸몄다.

1부에서는 슈만의 연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통해 한 여인의 사랑과 삶을 시적인 서정미와 드라마틱한 표현력으로 선보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이다. 깊이 있는 해석과 원숙한 감성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음악인으로서 손미숙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여경 피아노 리사이틀

Dream of Fantasy

일 시 | 9월 11일(목)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피아니스트 이여경은 이번 리사이틀에서 '환상곡(Fantasy)'이라는 형식만을 택해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상상력의 세계로 청중을 초대한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리스트, 그리고 스크리아빈까지, 서로 다른 문화권과 시대에서 탄생한 다섯 작품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와 상징주의로 향하는 전환기, 그리고 바흐에 대한 경의가 담긴 장엄한 피날레까지. 작곡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환상'이라는 주제를 비교하며, 환상곡의 다양한 얼굴을 통해 음악이 지닌 무한한 자유와 깊이를 선사한다.

제26회 미루섬합창단 정기연주회

세계의 선율, 하나의 울림

일 시 | 9월 17일(수)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여성문화회관 051-320-8332


이번에 26회를 맞이하는 미루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세계의 선율, 하나의 울림>을 주제로 관객을 만난다. 이번 무대는 아일랜드 민요부터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노래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의 '보리수', 아일랜드 민요 '아, 목동아!' 등을 비롯해, 2부에서는 '단발머리', '바람의 노래' 등 친근한 가요와 창작곡이 이어진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하모니 속에서 음악이 전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별이 빛나는 밤에

일 시 | 9월 12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이은미 010-8277-4746


서정적이면서도 온화한 음색과 화려한 기교를 겸비한 소프라노 이은미가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국내외 주요 오페라 무대와 콘서트에서 활약해온 그녀는 이번 무대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삶과 사랑,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엮었다. 헨델, 슈베르트, 베르디, 드뷔시 등 고전과 낭만을 넘나드는 명곡과 함께 김효준, 윤학준 등 한국 가곡,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감성을 전한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협연과 함께하며, 해설은 김태형이 맡아 곡에 담긴 배경과 이야기를 전한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

일 시 | 9월 30일(화)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5천원)
문 의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010-9336-2687


이번 정기연주회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과 시벨리우스 탄생 160주년을 기념해,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타악기로 재편곡해 섬세한 비엔나 왈츠의 매력을 전한다. 시벨리우스의 피아노 5중주 역시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로 편곡해 핀란드 민속적 색채와 풍부한 울림을 선사한다. 또한 작곡가 지휘자 이수연의 국악퓨전앙상블과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창작곡을 연주해 현대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대중과 가까이 잇는다.

부산시민회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5 대양가을음악회

일 시 | 9월 10일(수)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대양고등학교 051-640-0580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하는 대양가을음악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 매년 대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이 뜻깊은 무대는 학생과 주민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자리다. 올해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콘서트밴드가 출연해 풍성한 관악 선율로 가을의 오후를 수놓는다.

특히 국내 정상급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협연자로 참여해 하모니카의 서정적인 음색과 관악합주의 웅장함을 어우르며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프로그램에는 스페인의 정취를 담은 '톨레도', 한국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새야 새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로보카폴리 뮤지컬

브룸스타운의 에너지를 지켜라

일 시 | 9월 20일(토)~21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 장 료 | 6만 6천원
문 의 | (주)극단화랑 1800-6567



로보카폴리 뮤지컬이 부산시민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구조대 친구 폴리, 로이, 엠버, 헬리가 무대에 등장해 생생한 객석 플레이와 신나는 싱어롱 타임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구조대원을 꿈꾸는 어린이 토비의 작은 실수로 브룸스타운의 에너지타워가 정지하고, 마을은 정전과 정체, 구조 요청으로 큰 혼란에 빠진다. 과연 구조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공연은 흥미진진한 모험 속에서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아이들에게 전한다.

광복80주년 및 한미동맹 72주년 기념
리처드 위트컴 장군 기념음악회

일 시 | 9월 18일(목) 오전 10:3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창작오페라단 051-647-9080



광복 80주년과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해 제3회 리처드 위트컴 장군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장군"으로 기억되는 위트컴 장군의 정신을 기리며,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형식으로 초·중·고 교과서 속 명곡들을 선사한다.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황신영, 테너 장원상, 소프라노 신진범과 기타리스트 배서완이 무대에 오르며, 원더풀라이프의 궁중한복 패션쇼도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에게 위트컴 장군의 헌신과 인성을 배우고,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일 시 | 9월 20일(토)~21일(일) 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 시 1만원)
문 의 | 진엔터컴 1566-7356



신데렐라, 인어공주, 오로라공주, 백설공주, 자스민 아이들이 사랑하는 다섯 공주가 한자리에 모여 왕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펼쳐낸다.

인어공주에게 나쁜 습관을 알려주는 신데렐라, 남들과 비교만 하는 인어공주, 독사과를 먹는 오로라, 물레 바늘에 찢리는 백설공주, 거짓말을 일삼는 자스민 등 공주들의 색다른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공주들의 도전과 화합 속에 담긴 교훈적인 메시지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전한다.

2025 부산광역시문화상 수상자
합동 공연

일 시 | 9월 18일(목) 오후 7: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부산광역시문화상수상자회 051-803-3311



부산광역시문화상은 1957년 제정된 이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과학 발전, 그리고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합동 공연에서는 공연예술·전통예술·체육 부문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악, 태평무, 시조와 춤,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팝 트리오 OPUS 503이 축하 무대를 꾸며 특별한 감동을 더한다. 수상자들의 예술적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페스티벌

Festival Shiwol

2025 부산재즈페스타

일 시 | 9월 20일(토)~21일(일)
북항친수공원
입 장 료 | 1일권 9만 9천원, 2일권 15만원
문 의 | 051-623-0678

2025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일 시 | 9월 26일(금)~28일(일)
삼락생태공원
입 장 료 | 1일권 11만원, 2일권 17만 6천원
3일권 24만 2천원
문 의 | 에스24 1544-6399

음악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4

2025년 9월 금정수요음악회는 가을밤을 풍성하게 채울 무대를 네 차례 선보인다. 성악·실내악·피아노·관현악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들은 관객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선율을 만끽할 수 있다.



3일 <리베 아모르 앙상블의 밤>

리베 아모르 앙상블로 수요음악회의 포문을 연다. 독일어 Liebe와 이탈리아어 Amore를 합쳐 '사랑'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팀으로, 독일·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한 멤버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효근의 '첫사랑'을 비롯한 12곡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한다.

10일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품다>

피아니스트 권준과 박정희로 구성된 듀오지음이



피아노 포핸즈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청중과 소통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등 세 곡을 선보이며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17일 <The Magic Flute>

플루티스트 유주영이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함께 독주회를 연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와 프라이브룩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로 마친 그는 이번 무대에서 타파넬의 환상곡 등 다섯 곡을 선보인다.



24일 <김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리가 피아니스트 하승경과 함께 무대에 선다. 서울대와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그는 현재 울산남구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무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등 세 곡을 선보인다.

제100회 명품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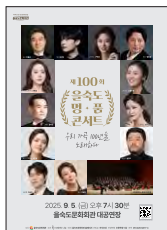
우리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일 시 | 9월 5일(금) 오후 7:30

울속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울속문화회관 051-220-5811~4



제100회 명품콘서트 <우리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는 모든 세대가 사랑해 온 우리나라 가곡 100년의 역사를 되짚는 특별한 무대다. 100여 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뛰어난 기량의 성악가들이 함께 연도별로 대표 가곡을 선보이며,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지는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사회는 뉴 아시아 오페라단 조영희 단장이 맡고, 출연진은 오페라단 나눔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젊고 유망한 성악가들로 구성됐다. 명품콘서트 100회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한국 가곡사의 흐름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장예지 플루트 리사이틀 In Serenade

일 시 |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010-4431-3373



섬세한 감성과 탄탄한 기량을 겸비한 플루티스트 장예지의 독주회가 열린다. 'In Serenad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슈만의 서정미가 물씬 풍기는 '3개의 로망스', 비도르의 고전적 아름다움이 깃든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브라질 작곡가 빌라로보스 특유의 이국적 정취와 개성이 담긴 '젯 휘슬', 그리고 마이아올레베의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소나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피아니스트 이은정과 첼리스트 김기량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섬세한 호흡과 풍성한 앙상블을 완성하며, 관객들에게 서정성과 낭만, 그리고 감각적인 음악적 색채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페라페 콘서트 시즌2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오페라 리콜레토

일 시 | 9월 4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오페라페'는 오페라(Opera)와 예술(Arte)의 합성어로, 다양한 예술을 융합한 공연을 뜻한다. 해운대문화회관의 대표 시리즈로 자리 잡은 오페라페

는 해설가 김성민의 쉽고 흥미로운 해설과 함께 클래식을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베르디의 명작 <리콜레토>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역사와 문화, 음악적 배경을 풀어내는 해설과 더불어 소프라노 강수진, 테너 김동혁, 바리톤 허종훈, 피아니스트 이현아가 함께 해 더욱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오창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 인 빈야드

일 시 | 9월 2일(화)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051-621-4577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기념하는 뜻깊은 무대가 펼쳐진다. 클래식 전통을 30년 넘게 이어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준비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 구조와 4,406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파이프 오르간의 위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하순봉 작곡가가 부산의 정체성을 담아 창작한 교향곡 제1번 '부산(釜山)'을 세계 초연하며 헌정하고, 2부에서는 부산 출신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생상스 교향곡 제3번 '오르간'을 통해 파이프오르간의 압도적인 울림을 전한다. 새로운 문화지도를 그려나갈 클래식의 밤이 관객을 기다린다.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18회 정기연주회 목관앙상블을 위한 특별연주회

일 시 | 9월 7일(일) 오후 3: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부산우드윈드앙상블 010-5660-3919



2005년 창단 이후 목관악기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플루트·클라리넷·색소폰 등 다양한 목관 앙

상블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플루트 듀엣의 경쾌한 선율, 클라리넷 앙상블의 섬세한 하모니, 플루트사랑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앙상블, 색소폰 그룹 위드브레스의 깊이 있는 사운드가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목관앙상블이 함께 무대를 채운다. 고전과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74회 예술공감 유통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9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의 이번 예술공감 무대는 로우브라스 앙상블의 매력과 다양성을 소개하는 자리로, 유포니움과 튜바가 지닌 깊고 풍부한 음색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특히 부산 최초의 로우브라스 앙상블 단체인 '유포니' 유포니움 2대와 튜바 2대로 구성된 독창적 편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며, 중후하면서도 폭넓은 표현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새로운 앙상블이 들려주는 색다른 울림은 관객들에게 로우브라스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2025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II

올리비에 라트리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

일 시 | 9월 10일(수)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콘서트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문 의 | 부산콘서트홀 051-640-8826



프랑스 오르간 음악의 정수를 대표하는 거장, 올리비에 라트리가 국내 관객과 만난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신 오르가니스트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 중 한 명인 그는,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보적 해석으로 오르간 음악의 경계를 확장해왔다. 이번 무대는 바흐에서부터 메시앙에 이르기까지 오르간 문헌의 주요 레퍼토리는 물론, 그만의 특기인 즉흥 연주를 통해 진정한 '소리의 건축'이라 불리는 오르간의 다채로운 면모를 선보인다.

제1251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예술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 9월 11일(목)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 장 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010-5019-0575, 051-760-1494



부산예술오페라단이 첫 번째 정기연주회로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는 <사랑의 묘약>, <카르멘>, <라 보엠>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세 작품을 중심으로 주요 아리아와 이중창을 선보인다.

순수하고 유쾌한 사랑의 감정부터 자유를 향한 열정, 청춘의 낭만과 이별의 슬픔까지, 다양한 사랑의 얼굴을 무대 위에 펼쳐내며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전한다. 대표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번 공연은 오페라 초심자에게는 친절한 입문서로, 애호가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의 재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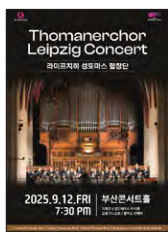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합창단

일 시 | 9월 12일(금)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콘서트홀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문 의 | 부산콘서트홀 051-640-8824



8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독일의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합창단이 부산을 찾는다. 바로크 거장 바흐가 음악감독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한 '성스러운 음악(Musica Sacra)'의 전통을 잇는데 역점을 둔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이다.

오를란도 디 라소, 페셀, 몬테베르디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과 함께, 바흐의 찬송곡, 브루크너의 성가곡 등 시대를 아우르는 성스러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42명의 합창단원과 오르가니스트의 깊이 있는 울림은 관객에게 진한 감동과 경건한 울림을 전한다.

제16회 스페셜 아티스트 CIK: 여름 저편의 브라스

일 시 | 9월 12일(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 바람을 타고 흐르는 브라스의 선율이 을숙도의 풍경을 물들인다. CIK 브라스 앙상블은 섬과 도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울림으로 여름의 기억을 노래하며, 계절과 감성을 품은 깊은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디스코 명곡 'I Want You Back', 영화 분노의 질주 'Danza Kuduro'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경쾌하고 세련된 브라스 사운드로 재해석한다. 청량한 바람과 어우러진 금관악기의 힘찬 울림 속에서, 관객은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서정이 교차하는 순간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선사인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특별기념음악회

일 시 | 9월 14일(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010-5660-3919



선사인 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을 기념한 연주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창단 이후 초등학교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단원들이 함께 하며, 음악을 통한 소통과 성장을 이어온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화려하게 풀어낸다. 베토벤 '극장 개관 서곡'으로 서막을 열고,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과 메르카탄테 플루트 협주곡 협연 무대에 이어 비제의 '아름의 여인' 모음곡 1·2번이 서정과 역동을 오가며 감동을 더한다. 지휘자 원준연을 중심으로 단원들은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응축해, 관객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한다.

제26회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Kiss 키스, 그 떨림에 관하여

일 시 | 9월 18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키스'에 관한 그림과 음악 이야기 : Kiss 키스, 그 떨림에 관하여>는 사랑의 갈망과 결합의 순간을 담은 '키스'를 주제로, 그림과 음악에 숨어 있는 내밀한 이야기를 렉처와 함께 풀어내는 아트텔링 콘서트이다. 미술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관객에게 특별한 예술적 교감을 선사한다. 연주단체 폰테앙상블은 클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을 통한 소통과 감동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예술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해운대문화회관 온스테이지 콘서트 세상의 모든 음악 - 아티스타

일 시 | 9월 16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온스테이지 콘서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되는' 참여형 콘서트다. 객석과 무대가 분리된 일반적인 공연과 달리, 관객이 무대 위에서 연주자를 마주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어 단순한 감상이 아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는 아티스타가 꾸미며 클래식, 재즈, 탭고, K-POP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클래식의 깊이와 재즈의 자유로움, 대중음악의 공감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속에서 관객은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게 된다.

제75회 예술공감 뚜또베네의 오페라 명곡 시리즈 '리골렛토'

일 시 | 9월 23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클래식 전문 공연단체 뚜또베네는 대중과 예술을 잇는 다리를 놓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며,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리골렛토>를 중심으로 명장면을 엮어낸다. 극 중 주요 아리아와 중창을 선별해 들려주며, 해설을 곁들여 작품의 줄거리와 감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해 오페라 초심자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고, 애호가에게는 명작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화려한 선율 속에서 인간 본성과 삶의 아이러니를 마주하며, 오페라가 지닌 진정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무대다.

가을석양 열린음악회 울속도 밤의 애창곡

일 시 | 9월 16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이번 음악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고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유명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정겨운 한국민요, 그리고 낭만적인 칸초네까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준비되어 있다. 연주를 맡은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풍부한 감성과 에너지를 담아 선보이는 솔로와 중창 무대는 가을밤을 음악으로 물들이고,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선율 속에서 즐거움과 여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의 렉처콘서트 세계를 지배한 대중음악들

일 시 | 9월 23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진행하는 이번 렉처콘서트는 "대중을 열광시킨 음악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시대를 뛰어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Hound Dog'부터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헌트릭스>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들을 통해 대중음악의 흐름과 사회적 맥락을 흥미롭게 짚어낸다. 이번 무대는 김태훈의 깊이 있는 강연과 함께 팝페라 가수 고현주, 정노유의 공연이 어우러져 강연 이상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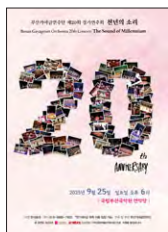
부산가야금연주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일 시 | 9월 21일(일)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9669-7922



부산가야금연주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제20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2004년 창단 이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리며 활발히 활동해온 연주단은 국내외 무대에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이견석 지휘자와 무용수 박지애, 경기민요 소리꾼 이은혜가 함께한다. 새로 위촉한 작품과 기존의 편곡 작품들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하며, 가야금의 깊은 울림과 풍부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연극

연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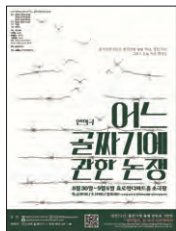
일 시 | 8월 30일(일)~9월 6일(토)

목·금 오후 7:30, 토 오후 5:00,

일 오후 3:00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극단 새벽 051-245-5919



연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은 비무장지대의 한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그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다층적으로 그려낸다.

저승길을 앞둔 영지의 이야기와, 그녀에게 들려주는 임선녀의 삶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다.

틀극과 극중극의 이중 구조, 전통연희의 놀이성과 서사기법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하며, 한 국적이면서도 인류 보편적 이야기를 연희적으로 풀어낸 극단 새벽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이다.

제38회 굿모닝콘서트 **지금, 국악**

일 시 | 9월 26일(금)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 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한 울속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즐기는 굿모닝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무대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악을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으로, 전통 악기의 개성과 매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피리, 생황, 25현 가야금, 거문고 등 각 악기의 솔로 무대는 물론,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합주곡까지 준비해 다채로운 국악의 풍경을 선사한다. 관객들은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정취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으며, 아침의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특별기획 공연 **고향사랑 음악회**

일 시 | 9월 27일(토)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고향사랑 음악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무대다. '내 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등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정서적 귀향의 시간을 선사한다.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는 '새로운 기획과 도전'을 모토로, 어려운 클래식 시장 속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시도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도 BRPO만의 열정과 신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연주를 통해,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음악의 힘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연극 **로제타**

일 시 | 9월 5일(금)~9월 6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051-780-6060



연극 **〈로제타〉**는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 의학과 교육의 빛을 전한 선교사이자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1890년 미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로제타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국내 최초의 맹아학교 '평양여맹학교'와 여성 진료소 '광혜여원'을 설립하며 조선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데 헌신한다.

시대의 그늘에 머물렀던 여성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배움의 기회를 전한 그녀의 여정을 통해 관객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신념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연극 **돛단배**

일 시 | 9월 5일(금)~9월 7일(일) 금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소극장6번출구**

입 장 료 | 1만 8천원

문 의 | 소극장6번출구 051-625-2117



2024년 제7회 작강연극제 한형석 연출상과 전성한 연기상을 수상한 화제작이 소극장에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작품은 폭탄을 실은 배가 서서히 폭발하며 시작된다. 재빠르게 기지를 발휘한 노비가 나무 조각을 끈으로 묶어 만든 뗏목 위로 양반과 함께 올라 목숨을 건진다. 이후 동학운동가 비양이 떠올리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서로 다른 계급과 신념을 지닌 세 인물은 망망대해에서 미래를 향한 항해를 모색한다. 좁은 뗏목 위에서 펼쳐지는 갈등과 대화는 변화의 물결 속 인간의 선택을 묻는다.

코미디연극 웨딩 브레이커

일 시 | 9월 11일(목)~26년 1월 4일(일) 평일
(화~금)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30, 오후 5: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전국 35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 <수상한 흥신소> 제작진이 선보이는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웨딩 브레이커>. 초단위로 터지는 웃음과 예측불허의 전개, 그리고 눈물과 감동까지 담아냈다. 2043년 국민 MC 임향한의 딸 임이랑은 아빠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으며 부모님의 결혼을 막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난 개그 극단에 숨어들면서 펼쳐지는 사건을 그린다. 진부한 로맨틱 코미디의 틀을 깨고, 타임슬립 판타지를 입힌 웰메이드 코미디로 관객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연극 행쇼

일 시 | 9월 25일(목)~26년 1월 11일(일)
평일(화~금)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00, 4:3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유쾌하게 풀어낸 코미디 연극 <행쇼>. 매 시즌마다 화제를 모으며 큰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독특한 형식과 신선한 시도, 기발한 스토리로 극강의 몰입도를 자랑하는 본격적인 코미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가루 가족이, 5년 동안 행복하기만 하면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행복 챌린지'에 도전하며 웃지 못할 소동이 펼쳐진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져 심 없이 폭소를 자아내는, 올해 가장 웃긴 연극을 만나보자.

숙희책방 - 부산

일 시 | 9월 13일(토) 오후 2:00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큰방(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051-790-7412



19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엄마가 운영하던 책방을 정리하러 온 연우는 우연히 쪽지를 발견하고, 라디오 혼신 속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철수를 만나게 된다. 자신을 '시민군'이라 소개한 철수를 통해 연우는 할아버지와 엄마 숙희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선택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 책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며 80년대의 감성과 그날의 흔적을 되새기게 하는 이 작품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그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이며, 우리 곁에 있었던 평범한 이들의 존재와 기억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용

발레 지젤

일 시 | 9월 19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금정문화회관이 낭만발레의 최고 걸작 <지젤>을 선보인다. 순백의 튀튀를 입은 여성 군무의 몽환적 매력을 일컫는 '발레블랑(Ballet Blanc)'의 대표작으로, 낭만주의 발레의 정수를 보여준다. 순박한 시골 소녀 지젤이 알브레히트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1막, 그리고 죽음조차 초월한 숭고한 사랑을 그려낸 2막까지 극적인 전개로 깊은 감동을 전한다. 공연은 발레에스티퍼협동조합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와이즈발레단 등 국내 대표 발레단이 함께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연극 우리는 언제나 〇〇였다

일 시 | 9월 19일(금)~9월 21일(일) 금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소극장6번출구
입 장 료 | 1만 8천원
문 의 | 소극장6번출구 051-625-2117



극단 따뜻한 사람의 레퍼토리 공연은 운전 초보 청년 세은과 친구들의 좌충우돌 자동차 여행을 그린다.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세은은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된 듯 자신감 넘치며 유빈, 시아에게 여행을 제안한다. 하지만 운전보다 자동차 자량과 구매 사연에 몰두하는 세은의 모습에 유빈은 날카로운 충고를 던지고, 시아는 분위기를 달래려 애쓴다. 짧은 말다툼 끝에 길까지 잘못 들게 된 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다크룸(A Dark Room)

일 시 | 9월 20일(토)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현대무용 작품 <다크룸>은 현대 사회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존재의 분실과 정체성의 흔들림을 춤으로 표현한다. 사회와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이 즉흥적 움직임과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로 확장된 춤의 서사는 관객과의 깊은 소통을 지향하며 예술적 사유의 힘을 전한다.

뮤지컬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일 시 | 4월 25일(금)~12월 31일(수)
목·금 오후 7:30, 토 오후 3:30, 6:30
일·공휴일 오후 3:30 초콜릿팩토리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해바라기소극장 1600-1716



6명의 남녀가 너무도 우연한 계기로 한 카페에서 만나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유쾌한 힐링 뮤지컬.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닌 이들이 마주한 일상 속 특별한 인연은, 잃어버렸던 사랑과 행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우주, 그리고 지구, 지구에서도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서울 안의 흥대.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대사처럼, 이 작품은 우연처럼 스쳐간 만남이 어떻게 소중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그려낸다.

창작 뮤지컬 **복근이 필요해**

일 시 | 9월 3일(수)~9월 14일(일) 수~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6:00
일 오후 3:00 어댑터씨어터 2관
입 장 료 | 일반 3만원
문 의 | 어댑터씨어터 0507-1440-7905



창작 뮤지컬 <복근이 필요해>는 괴롭힘에 시달리는 영철이 전학생 복근과 만나며 벌어지는 우정과 용기의 이야기를 그린다. 학교에서 매일 상진과 진상에게 시달리던 영철은 복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두 사람은 DVD방 누나 재인을 구하며 비밀 아지트를 얻게 된다. 그러나 괴롭힘은 계속되고, 두 친구는 기상천외한 복수 작전에 나선다.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편견, 상처를 마주하지만, 서로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용기를 배우게 된다. 함께 싸울 동반자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상징하는 ‘복근’과 함께, 작품은 유쾌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지지하는 가치와 연대의 의미를 전한다.

뮤지컬 **왓 이프**

일 시 | 9월 6일(토)~12월 28일(일)
수~금 오후 7:30, 토·공휴일 오후 2:00, 5:00 일 오후 3:00
NC백화점 부산대점 소극장(6층)
입 장 료 | 전석 5만원
문 의 | (주)사이닝뮤지컬컴퍼니 1661-3124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흥경인 배우의 대학로 연출 데뷔작. 판타지 로맨스 뮤지컬 <왓 이프>는 회사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던 ‘주명’이 완벽남 ‘차은유’에게 첫눈에 반하며 시작된다. 신비한 능력을 지닌 친구 ‘유신’으로부터 다섯 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사랑을 향한 조심스러운 여정을 시작한다. 다섯 번의 기적은 과연 그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섬세한 서사와 드라마틱한 음악, 감각적인 안무가 어우러져, ‘만약에’라는 상상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사랑을 노래한다.

가족극

창작 뮤지컬 **나의 보통의 하루**

일 시 | 9월 12일(금)~10월 19일(일) 화~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6:00
일 오후 2:00, 5:00 가온아트홀 1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이야기협동조합 010-8932-5733



창작뮤지컬 <나의 보통의 하루>는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성장과 연대, 책임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그린다. 취업 준비에 지쳐가는 미소, 배우의 꿈을 좇지만 번번이 낙방하는 친구 소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전 남친과 백수, 진상 손님까지 반복되는 일상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웃음과 눈물로 펼쳐진다. “너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라는 대사처럼, 무대 위 청춘들은 잊고 있던 꿈과 웃음을 다시 마주한다.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울림으로 관객에게 지금의 청춘에게 위로와 공감을 선사한다.

가족극 **초록마술사의 아쿠아버블쇼**

일 시 | 8월 9일(토)~9월 28일(일)
토 오후 1:00, 3:00, 일 오전 11:00
오후 1:00 초록마술극장
입 장 료 | 1만 2천 9백원
문 의 | GS엔터테인먼트 010-7517-5859



부산의 어린이 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맑고 환상적인 비눗방울의 세계로 떠나는 가족 공연! UFO, 애벌레, 버블 안의 버블 등 다채롭게 구성된 ‘아트버블쇼’와 ‘아쿠아버블 퍼포먼스’, ‘러브버블 퍼포먼스’, 버블 속을 탐험하고 버블을 자르는 ‘버블 체험쇼’까지 오감이 즐거운 무대가 펼쳐진다.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생생한 체험이 어우러진 이 버블쇼는 아이들에게는 마치 꿈같은 시간으로,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동심의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어린이 **서커스쇼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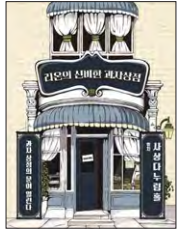
일 시 | 9월 6일(토) 오전 11:00
오후 1:00, 3:00 하하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 할인)
문 의 | 엔에이치엔링크 1588-7890



착한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공연 <어린이 서커스쇼>가 찾아온다. 익살맞은 광대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마술과 서커스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무대로, 아이들에게는 호기심 가득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웃음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화려한 마술은 물론, 막대 저글링쇼, 외발 자전거쇼, 접시 돌리기, 팽이 모기, 벌룬쇼 등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린이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를, 가족에게는 웃음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일 시 | 9월 13일(토)~14일(일)
토 오후 1:30, 3:30, 일 오전 10:30
오후 1:30, 3:30 **사상 다누림홀**
입 장 료 | 1만 6천원
문 의 | 와이엘케이엔터테인먼트 010-7713-1461



“입 안에서 퍼지는 마법!
리온의 신비한 과자 상점
이 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모티브로 펼쳐지는 어린이 마술극! 마술사 리온이 운영하는 특별한 마법 상점에서 시작된다. 리온은 신비로운 마술을 통해 다양한 과자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과자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진행한다.

실감 나는 마술 퍼포먼스와 직접 참여하는 체험까지 더해져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리온의 마법 같은 순간을 만나보자.

영상

On Screen Concert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콘서트

일 시 | 9월 2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세계적인 거장 히사이시 조의 음악세계를 스크린을 통해 만난다. 이번 무대는 필하모니 드 파리에서 열린 실황 영상을 상영하며, 히사이시 조가 직접 지휘하고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마르셀리가 함께한 명연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벼랑 위의 포뇨>, <원령공주>의 주요 장면 음악들로 구성되어,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스크린으로 만나는 생생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영상미는 관객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음악 여행이 될 것이다.

2025 라이브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일 시 | 9월 27일(토) 오후 1:00, 3:00,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예스이십사(주) 1544-6399



<아기돼지 삼형제>가 가족 관객들을 찾아온다! 명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공연은 '나쁜 늑대' 대신 '착한 늑대'를 등장시켜 아이들이 더욱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재탄생했다. 지푸라기나무 벽돌로 집을 짓는 삼형제의 익숙한 이야기에 화재 안전 교육을 더해 재미와 배움이 함께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영상 효과를 활용해 집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구현,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안겨준다. 웃음과 감동, 교육적 메시지까지 담은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행사

김옥균의 클래식 인문학강좌 **낭만파 작곡가의 만남&렉처 콘서트**

일 시 | 8월 19일(화)~10월 14일(화)
매주 화 오전 10:00 **동래구 평생학습관**
입 장 료 | 무료(선착순 30명)
문 의 | 동래구 평생학습관 051-550-4467

• 출연
클래식기타 고충진, 바리톤 한성권, 오보에 박종관, 플루트 박찬엽·장극태, 바리톤 배웅

제201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가을, 고향, 편지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9월 20일(토) 오후 3:00
영광도서관 문화홀(9층)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010-6367-0149

• 출연
허영화 시인 외 시낭송가, 성악가, 가수, 테너 김이수, 가수 임미자

콘서트

2025 빈에서 콘서트 첫 번째 이야기:추억

일 시 | 9월 13일(토) 오후 3: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OP석 13만 5천원
R석 12만 5천원
문 의 | (주)에음컬처엔터테인먼트 010-4216-8781

알 디 메올라 인 부산 AL DI MEOLA in BUSAN

일 시 | 9월 20일(토)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 의 | (주)에이치아이엔터컴퍼니
070-7814-7330

메타코미디 오리지널 스탠드업 시리즈 대니초 Romantic Comedy Encore

일 시 | 9월 20일(토) 오후 7: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입 장 료 | 전석 4만 4천원
문 의 | 티켓링크 1588-7890

김옥균의 클래식 인문학강좌 **클래식으로 떠나는 인문학기행 - 가을학기**

일 시 | 9월 3일(수)~11월 5일(수) 매주 수
오후 2:00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입 장 료 | 무료(선착순 30명)
문 의 | 부산진구청 평생학습관 051-605-4875

프로그램

물의 도시 베니스와 바로크 작곡가의 만남
러시아 문화의 정수-샤토펬테르부르크 작곡가의 만남
베토벤의 유산-본과 베를린 음악기행
시벨리우스의 혼-핀란드 음악가와 지휘자
노르웨이 음악의 풍경-그리그 피아노협주곡, 페르 권트모음곡
빛나는 보헤미아 프라하-드보르작, 스메타나 대표 음악
모차르트의 탄생지-쾰스부르크음악축제와 그라페 네그 음악제

김옥균의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뮤직 아트홀(UN평화공원 옆)
입 장 료 | 2개월 10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전 MBC PD이자 음악해설가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불면증·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감상과 서양음악사 특강, 가곡 부르기, 연주회 실황 영상까지 클래식 입문자도 즐길 수 있는 힐링 강좌다.

프로그램

- 그리그 관현악 모음곡 <페르균티>
- 뮤지컬영화 <오페라의 유령> 다시보기
- 레너드 번스타인과 세이지 오자와의 만남 공연 실황
- 추억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Yanni' 공연 실황
-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전막 감상
-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 컬렉션 특집
- 멘델스존 교향곡 4번, 비제 교향곡 1번

전시

갤러리한스 신진작가 프로젝트

Up-and-Coming Artists 3

일 시 | 8월 16일(토)~9월 7일(일)
갤러리한스(기장군 일광읍 이천6길 7)
문 의 | 051-784-0233

뜨거운 여름의 정점에서, 갤러리한스가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진작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박소진, 박준우, 정지웅, 정희진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 에너지 가득한 색채와 형상, 기성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으로 젊은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생생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된다. 한 발 먼저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고, 다가올 계절을 예술로 채워보자.

9월 아카데미 시네바움(CINEBAUM)

일 시 | 매주 월요일
시네바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25)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



1일(월) 오후 7:00 새 나라, 새 미술: 세종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 최석태(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8일(월) 오후 7:00
1부: 노년, 그 의미와 품격

- 박홍규(영남대 명예교수)

2부: 노년, 그 고요한 아름다움

- 이기숙(신라대 명예교수)

15일(월) 오후 7:00 나를 디자인하다:

퍼스널 브랜딩의 힘

- 박홍식(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29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 스크리닝:

보이지 않는 영화들' 공모 뒤 상영 및 공모 진행
- 김영광(영화평론가)

첫 목요일 오후 5:00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
마지막 목요일 오후 5:00 <하이쿠 산책>

9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국내 최대 규모의 오페라 콘서트 영상 보유처인 오페라바움은 공연 감상 전 예습과, 미니 콘서트 등 클래식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오페라/도니제티 여왕3부작 안나 볼레라(5~6일), 로베르토 데브뢰(12~13일),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19~20일), 로시니 '이탈리아의 터키인'(26~27일)
콘서트/말러 교향곡 3번(1, 6일), 말러 교향곡 4번,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뤼케르트에 의한 5개의 가곡'(8, 13일), 베를린 필 시즌 개막 콘서트(15, 20일), 말러 교향곡 제5번(22, 27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29일)

BNK부산은행갤러리 9월 전시

일 시 | 9월 10일(수)~9월 30일(화)
BNK부산은행갤러리(중구 광복중앙로 13, 2층)
문 의 | 051-246-8975, 051-620-3813



10일(수)~21일(일)
<진신인 국제미술전>
세계 10대 명인록에 오른 장군론 교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화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서양화 기법과 중국화의 표현을 조화롭게 결합했다. 중국화 특유의 시적 정취와 화려한 운치, 서양 유화의 질감과 조형미가 어우러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22일(월)~30일(화)
<기록과 기억-스냅샷 스토리>

손대광 작가의 사진전

은 유기체 같은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욕망과 지향점을 카메라에 담았다. 거리의 미학을 포착한 연작사진을 통해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며, 이미지로 풀어낸 독창적인 시선을 제시한다.



갤러리한스 신진작가 프로젝트

유희 초대개인전<lumen et umbra : 日常>

일 시 | 9월 13일(토)~10월 5일(일)
갤러리한스(기장군 일광읍 이천6길 7)
문 의 | 051-784-0233



2023 신진작가전 WINNER로 선정된 유희 작가는 사라지고 잊힌 흔적 속에서 흐르는 시간을 포착하며, 그 안에 깃든 기억과 감각을 탐구한다. 그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느린 이야기에 주목하고, 물질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빚어내는 변화를 섬세하게 기록한다.

작품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과 관계가 스며 있으며, 관객은 이를 따라가며 조용히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희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라진 것과 남겨진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이 지닌 의미를 깊이 있게 드러낸다.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한여름 밤의 감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여름, 목가>

글 김애나 양산시 물금로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콘서트홀을 찾았다. 웅장하고 세련된 공연장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설렘이 가득했으며, 공연이 시작되자 그 기대는 곧 아름다운 감동으로 이어졌다. 무대 위 부산시립예술단의 연주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특히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의 깊이 있는 선율은 무기력했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졌고, 어느새 깊은 위로와 치유로 다가왔다.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시간도 마음도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공연 외적으로도 인상 깊었던 점은 관객들의 태도였다. 소음 하나 없이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연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공연에 임하는 관객들의 예의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무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으며,



공연이 끝난 뒤에도 5분 넘게 이어진 앵콜 박수는 그날의 감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벅차오른다.

아름답고도 행복했던 여름밤의 '여름, 목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한여름 밤, 이렇게 깊은 감동을 전해준 공연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안겨줄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피에로의 선물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

글 박수빈 연제구 해맞이로

'마임서커스'라는 단어조차 낯설어 어떤 무대일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기대 이상으로 인상 깊은 무대였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답게 로비는 아이들로 가득했지만, 나처럼 어른끼리 온 관객도 적지 않았다. 키 큰 피에로와 키 작은 피에로가 만들어내는 찰떡같은 호흡, 과장된 표정과 동작만으로도 감정이 생생히 전달됐다. 아이들은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아이들의 웃음에 어른들도 자연스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유머를 넘어 아크로바틱과 노련한 무대 연기에 감탄했고, "아니예요", "바보" 같은 한국어 표현이 더해져 공연에 한층 친근함을 더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무대를 즐기는



두 피에로의 에너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끝난 뒤, 피에로들과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았다. 마치 어린 시절 내 사진첩 속 한 장면처럼. 어디서든 함께일 것 같은 두 피에로를 언젠가 또 한국 무대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아버지를 찾아서

홍정욱 장편소설
산지니 / 1만 8,000원

장편소설 <우리들의 누이>로 많은 독자를 감동시킨 홍정욱 작가가 이번엔 청소년을 위한 신작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37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작품에 녹아 있다. 주인공 연수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새와 나무를 좋아하는 조용한 소년이다. 부모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어 친구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반 친구들에게까지 폭로된다. 열아홉 살 차이에 불과한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불러온다. 아이들은 사고쳐서 낳은 아이라고 수군댄다. 소설 속에는 감정이 나이트처럼 섬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하지만, 에둘러 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나이의 아이들이 있다. 실수와 잘못도 가득하다. 그러나 용서와 성장으로 반짝이는 순간 역시 가득하다. 저자는 무수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소용돌이치는 내면을 아름다운 묘사와 시적인 순간들로 담아냈다.



음악의 역사: 소리로 말하고 함께 어울리다

로버트 필립 지음 / 이석호 옮김
소소의책 / 2만 7,000원

이 책은 고대 전통음악부터 현대의 팝 음악까지 광범위한 음악 세계를 넘나든다. 저자 로버트 필립은 음악가이자 작가이다. 코렐리부터 쇼스타코비치까지 작곡가 68명의 400곡을 흥미롭게 분석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관현악곡 안내서> 등의 책을 썼다. 인간에게 음악이란 무엇일까? 세계 각지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악기와 음악 전통의 특징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에서 음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음악을 둘러싼 궁금정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그 범위가 방대하다. 저자는 지역과 인물, 형태, 악기, 장르 등을 넘나들면서 음악의 역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써내려간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전통음악부터 중세 성가,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그리고 재즈와 록, 힙합같은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읽어냈다. 여러 역사적 사건과 시대 상황이 음악의 발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대의 음악 장르와 그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등을 분석하고 가늠한다.



한 컷씩 예술사

윤상석 글 / 박정섭 그림 / 조선우 감수
풀빛 / 1만 5,000원

인류 역사 속 중요한 예술사의 순간들을 한 컷 그림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한 컷'은 단순한 그림 한 장이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방대한 예술 세계와 수많은 예술가·작품, 사실주의·인상주의·초현실주의 같은 다양한 사조들은 여전히 입문자들에게 큰 벽처럼 다가온다. 이 책은 복잡한 예술의 흐름을 중요한 60 장면으로 압축하여 명쾌하게 설명한다. 선사 시대에는 동굴 벽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조각이나 건축, 중세 시대는 종교 중심의 예술, 르네상스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바로크와 로코코의 비교, 인상파가 나타난 근대 미술, 피카소와 앤디 워홀의 현대 미술까지 역사의 순간순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다.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예술사이다. 예술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은 물론, 예술을 어렵게 느껴왔던 독자들의 입문서로 좋다.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부산문화회관 가족초청행사 & 벼룩시장



부산문화회관은 8월 1일(목) 오전 10시 대극장 1층 로비에서 가족초청행사와 직원참여 벼룩시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워라벨(Work-Life Balance) 실현,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가족초청행사에서는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장 전 층을 개방해 시설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큰 호응을 얻으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열린 벼룩시장에서는 직원과 예술단원이 준비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며 자원 재활용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과 가족이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부산문화회관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노사참여 헌혈 행사

(재)부산문화회관은 8월 8일(금), 부산문화회관 다듬채 앞 주차장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최근 헌혈 참여율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 이사를 비롯한 노조 간부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정기 헌혈은 물론, ESG 경영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신뢰를 다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하반기 교양 아카데미 개강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운영하는 하반기 교양 아카데미가 오는 8월 28일(목)부터 시작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문학·미술·음악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강좌로 구성되며, 전시 연계 프로그램부터 인문학, 클래식까지 폭넓은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난다.

✓ 미술 분야

1차 프로그램은 프리다 칼로 특별전과 연계한 강좌가 눈길을 끈다. 개막일인 8월 28일에는 김찬용 도슨트가 칼로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오픈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생에게는 전시 기간 내 관람 가능한 티켓이 제공된다. 이어 9월 9일과 16일에는 황수현 교수가 '아즈텍 문명에서 프리다 칼로까지'를 주제로 멕시코 문화와 작가의 삶을 연결해 설명한다. 또한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는 임상심리학자 윤현희가 '치유의 미술관'을 통해 미술과 심리학의 접점을 조명하며, 예술을 통한 자아 성찰과 회복을 탐구한다.

✓ 음악·문학 분야

음악 분야에서는 9월 8일부터 작곡가 김상헌이 '오페라 여행'을 주제로 오페라의 역사와 명작들을 탐방하며, 9월 20일부터 이동신 교수가 '위대한 만남'을 통해 푸시킨과 차이코프스키, 페트라르카와 리스트 등 문학과 클래식의 상호 영향을 살핀다. 11월에는 강성곤이 '아리아 아모레, 내사랑 아리아'로 오



페라 아리아와 문학작품의 관계를 풀어내며, 김정옥은 '클래식이 품은 문학의 세계'를 통해 셰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가 음악에 끼친 영향을 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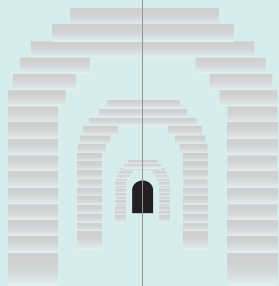
문학 분야에서는 9월 16일부터 함정임 교수와 소설가 정재운이 함께하는 '노벨문학상 강독 오딧세이'가 시작된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이 강좌는 앙드레 지드에서 한강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언어·자유·사랑·민족이라는 키워드로 읽어내며 문학적 사유의 깊이를 확장한다. 또 9월 10일부터는 이진숙 미술사학자가 '테마로 보는 서양미술사'를 진행, 10개의 핵심 주제를 통해 서양미술의 흐름과 상징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는 전시, 미술사,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성과 연속성 있게 엮어 시민들의 예술 감수성과 인문학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2차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양 콘텐츠로 시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BSCC

2025 하반기 아카데미 프로그램



인문·교양 프로그램

I 김상헌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 여행

김상헌 | 작곡가, 영화음악가

9. 8 ~ 11. 17 (매주 월,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20만원

II 테마로 보는 서양미술사

이진숙 | 작가, 예술의전당 강사

9. 10 ~ 11. 26 (매주 수, 10회) 16:00~18:00
컨퍼런스홀, 20만원

III 노벨문학상 강독 오딧세이 (앙드레 지드에서 한 강까지)

함정임 |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소설가
정재운 | 소설가

9. 16 ~ 12. 2 (매주 화, 10회) 19:00~21:00
컨퍼런스홀, 20만원



<프리다 칼로> 전시연계 프로그램

I 고통 속에 피어난 환희, 프리다 칼로

김찬용 | 도슨트

8. 28 (목) 14:00~16:00
챔버홀, 2만원(전시 티켓 포함)

II 치유의미술관 (그림에서 마음을 읽는 심리학)

윤현희 | 임상심리학자

9. 5 ~ 9. 26 (매주 금, 4회) 14:00~16:00
컨퍼런스홀, 8만원

*본 강좌 수강시 1회에 한해 <프리다 칼로> 전시 관람 기회 제공

III 아즈텍 문명에서 프리다 칼로까지: 매혹의 멕시코 탐험

황수현 |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교수

9. 9 ~ 9. 16 (매주 화, 2회) 14:00~16:00
컨퍼런스홀, 4만원

*본 강좌 수강시 1회에 한해 <프리다 칼로> 전시 관람 기회 제공

<작가가 사랑한 작곡가> 클래식 교양 프로그램

I 문학과 음악의 위대한 만남

이동신 |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9. 20 ~ 10. 18 (매주 토, 4회) 11:00~13:00
컨퍼런스홀, 8만원

II 아리아 아모레, 내사랑 아리아

강성곤 | 음악 칼럼니스트, 전 KBS 아나운서

11. 4 ~ 11. 25 (매주 화, 4회) 14:00~16:00
컨퍼런스홀, 8만원

III 클래식이 품은 문학세계

김정옥 | 클래식전문가

11. 27~12. 18 (매주 목, 4회) 14:00~16:00
컨퍼런스홀, 8만원

2026년도 상반기 (재)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부산시민회관 : 공연장(대/소극장), 전시실
-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 불가
※ 셋업, 철수, 운영 등 작업 불가(휴관일은 대관료에 미포함)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리모델링 공사로 2026년 대관 불가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및 전시실은 정면화 공사 일정에 따라 수시대관으로 진행 예정

대관일정

- 대관기간 : 2026. 1. 1.(목) ~ 6. 30.(화) (6개월)
- 대관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대관 공지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9. 17.(수) 09:00 ~ 9. 30.(화) 18:00
- 결과회신 : 2025년 10월 예정

대관내용

- 기초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 물품 등 판매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bscc.or.kr/rental)
-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전(대극장 60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80% 납부
※ 납부기한 내 계약금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취소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이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납부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
※ 공연/전시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담당 : 051-607-6075
- 부산시민회관 공연장 담당 : 051-607-6074
- 부산문화·시민회관 전시실 담당 : 051-607-6121, 6127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프랑스 2025. 8. 28.(목) 7:30pm-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영국 2025. 10. 30.(목) 7:30pm-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새로운 세상의 갈망, 민족의 혼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저항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문화 | 대극장 2025. 8. 17.(일)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문화 | 중극장 2025. 8. 2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 최원석

※ 14세 이상 관람



<팬텀싱어4>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유일무이한 카운터테너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고의석**

문화 | 대극장 2025. 9. 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달린 동물원>

문화 | 중극장 2025. 9. 6.(토)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문화 | 대극장 2025. 10. 18.(토)-19.(일) 2:00pm, 7:00pm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 출연 | 이규형, 손우현, 이상아, 웅성우, 이주영, 박주현,
김향기 외 다수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뽕야>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시간 미정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í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물에 관한 의식과 질문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시민 | 대극장 2025. 8. 30.(토) 2:00pm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안무 | 김보라

※ 7세 이상 관람



송승환이 만든 첫 번째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시민 | 대극장 2025. 9. 6.(토) 11:00am, 2:00pm, 4:30pm,

9. 7.(일) 11:00am, 2:00pm

R석 77,000원 S석 55,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 아동 단독 입장은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



하반기 시민뜨락축제

시민|야외광장 2025. 9. 12.(금)-10. 24.(금) 12:10pm
 9월 12일(금) Obblivoce, 레트로스팩트
 9월 19일(금) 친친탱고, 현미밴드
 9월 26일(금) 청아 앙상블, 아티스타
 10월 17일(금) 트락, 블랑누아
 10월 24일(금) 라이크앙상블, 부산STAPS탐댄스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48개월 이상 관람



©Korean National Ballet

우리 크리스마스에 볼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I
중인II

문화|챔버홀 2025. 8. 12.(화) 7:30pm
 • 튜바 | 임성빈
 • 피아노 | 백진주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소리, 승천

부산콘서트홀 2025. 9. 13.(토) 5:0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벤 김



독일 투어 프리뷰 콘서트
MUSICA VIVA

낙동아트센터 2025. 9. 17.(수)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정원영
 • 비올라 | 닐스 뮌케마이어



독일 초청 연주회 - 무직페스트 베를린 2025 폐막공연
Musikfest Berlin

베를린 2025. 9. 23.(화) 8:0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벤 김



독일 초청 연주회 - BR 무지카 비바
MUSICA VIVA

뮌헨 2025. 9. 25.(목) 8:0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강별
 • 비올라 | 닐스 뮌케마이어



부산시립합창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이기선
• 연주|UKO



부산시립무용단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이정윤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문화 | 대극장 2025. 8. 14.(목) 7:30pm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이동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차 측 협의에 한함)

VIP SPECIAL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 할인(10~30%)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종료**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종료**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종료**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잠비나이×미역수염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3:00,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폐하모닉오케스트라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종료**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종료**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종료**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종료**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7:30 40매)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종료**

2025년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종료**

2025년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종료**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종료**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종료**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종료**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야음악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홍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삼명무역 대표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W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엘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셔리 주식회사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임은자 정명선
정명선 정민섭
정민섭 정의화
정의화 조성락
조성락 하정태
하정태 한원우
한원우 허혜영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시립극단 제80회 정기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5. 9. 11.thu~13.sat 평일 19:30, 토요일 17:00

The Crucible

by Arthur Miller

시련

세일럼의 마녀들 이야기가 시작된다!

작 아서밀러 연출 최용훈

출연 황창기,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이혁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채민수, 이태성,

조정우, 박규한, 김성열, 윤영식, 이수현, 전용균, 이사라, 박명정, 박유진

라이선스 (주)인피니스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문의전화 051)607-6000(ARS 1번)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2025. 8. 28.(목)~9. 12.(금)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9. 22.(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8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7947

010-****-6703

010-****-2043

010-****-3825

010-****-9026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 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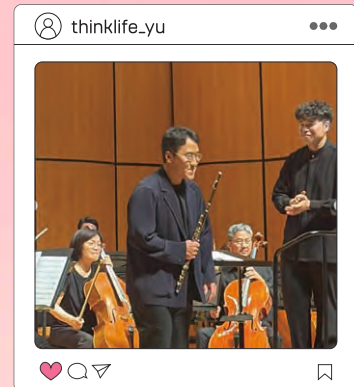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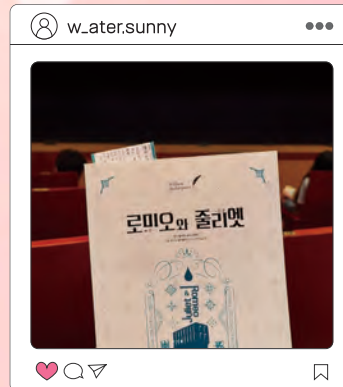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hoi JinHan

Dark Room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25. 9. 20.Sat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 | 전석 10,000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할인 | 누림회원(40%), 초.중.고, 예술인패스(30%), 단체 20명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50%) * 학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표소 현장확인 후 티켓발권 /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 임해연, 주하영, 최원석, 손정현, 조연희, 임유정, 최진한

안무 및 연출 | 최진한 사운드디자인 | 최혜원 조명디자인 | 김철의 영상디자인 | 임정은 의상디자인 | 최인숙 무대감독 | 김진우 영상기록 | 주유찬 기획 | 이승윤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21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30 - November 02, 2025
BEXCO Auditorium | Busan Cinema Center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MBC 대표방송 KNN KBS 부산방송총국 K 국제신문

제 45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2025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1st ANNIVERSARY BUSAN CHORAL FESTIVAL&COMPETITION 2025

21

제21회 2025 부산국제합창제

21st ANNIVERSARY BUSAN CHORAL FESTIVAL&COMPETITION 2025



GRAND CONCERT

25.11.01 SAT 15:00 | 벙스코 오디토리움

포레스텔라 | 월덴엔젤피스 | 닉시 |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 시립 연합 합창단 | 5개국 연합 합창단 | 부산 콘서트 오케스트라
예매 인터파크티켓 | R석 40,000 / S석 30,000 / A석 20,000



SPECIAL CONCERT I

10.30 THU 17:30 |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5개국 500여명의 경연팀 특별무대
전석 초대 공연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SPECIAL CONCERT II

10.31 FRI 19:30 |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 인천시립합창단 | 나주시립합창단
인터파크티켓 | 전석 10,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Songs of Joy

기쁨의 노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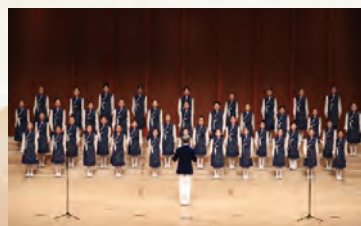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박현진



지휘자
권영기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2025. 9. 13.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Hammer by Alexander Ekman

Artistic Director **Katrín Hall**

11. 21 Fri - 22 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19:30 (토) 15:00



Enjoy Your Time at LOTTE -Premium outlet DONG BUSAN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구찌·버버리·몽클레르 등
약 500여개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쇼핑 경험을 통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